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5월 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집 뿐이리." 가정은 인격체 형성의 최초 단계이며 행복의 원천이다. 가정이 안락하면 세상이 안락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가족간에 무관심과 불화로 가정은 있으나 '가족'이 없다고들 말한다. 전도된 가치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천륜의 도리를 저버리기까지 하는 불행을 우려한다. 가정이 진정 안식처가 되는 길을 묻는다. 〈편집자 주〉

가정은 행복의 원천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집이함경〉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좇아오게 마련이다. 복이란 행위에서 오는 과보일 뿐, 결코 신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 〈아난문사불길흉경〉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 형제 부부 가족 안팎의 친척 사이에 서로 경애하여 미워하지 않으며, 유무상통하여 아끼는 일이 없으며,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량수경〉

친척이야말로 으뜸가는 벗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다 친척을 알고는 있지만, 지극한 애정으로 근본을 삼으며, 청성을 앞세우고 의(義)는 뒤로 미루는 태도를 취해야 비로소 같이 살 수가 있다. 〈출요경〉

친족끼리 서로 친근하고 공경하면서 서로 돕고 고락을 함께하도록 하면 이것으로 육방이 안온할 것이니 이것이 육방에 대한 예배이니라. 〈육방예경〉

부자(父子)간에, 형제간에, 부부간에, 친족간에 항상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질시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말과 안색이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해 주어야 한다. 〈무량수경〉

삶은 마땅히 다섯가지 일을 가지고 친척을 경애해야 한다. 다섯가지란 첫째는 물질을 급여함이요, 둘째는 좋은 말이요, 셋째는 서로 이롭게 함이요, 넷째는 협력이요, 다섯째는 속이지 않음이다. 〈장아함경〉

부모를 섬기는 것, 처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숫타니파타〉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제 몸도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과 재산이 제 것일까. 〈법구경〉

관련기사 3 · 11면

선학원 이사 9명 제적원 제출

정일 · 범행스님등 조계승적 포기불사 밝혀

조계종, 초심호계위 소집…대화 여지 남겨

조계종 · 선학원 결국 결별하는가.

조계종이 4월 26일 선학원이사에 대한 초심호계원 회의를 개최하자 이에앞서 24일 선학원 이사 9명이 총무원에 제적원을 제출,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날 법진(정법사) 성열(강남포교원) 자민(연대선원)스님 등 선학원 이사 3명은 이사장 정일(보광사), 전 이사장 범행(광달사)스님을 비롯 성문(묘관음사) 상원(복전암) 오원(칠보사) 정수(북악사)스님등 이사 9명의 제적원을 총무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조계종 개혁회의 이후 재단법인 선학원의 조계종 단 귀속을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여오면서 우려되던 종단분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선학원이사들은 이날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들이 제적원을 내면서'라는 성명을 통해 "일제시대에 민족불교를 지키기 위해 설립된 선학원은 현 조계종의 탄생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등 조계종단과 선학원은 한뿌리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 종단이 행정적,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정관변경을 요구하며 문제해결보다는 일부 임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전개해 제적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학원 이사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연말 이사회에서 재단임원 한사람이라도 징계할 경우 전 임원이 단일대오를 형성해 공동대응키로 결의했다"며 "진정한 개혁종단이 구성되면 언제든지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3면으로 이어짐

초파일 남북공동축원문 발표될듯

법타스님 방북 신계사 복원불사 등 논의

올해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는 남북한 불교도의 통일염원을 담은 초파일 공동축원문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4면〉

4월16일부터 20일까지 북한을 방문, 조선불교도연맹 심상련 서기장을 만난 법타스님(조계종 총무원장, 평불협 회장)에 따르면 우리측에서 준비한 공동축원문 초안을 조불련에 전달했으며, 조불련은 충분한 문안검토 후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법타스님은 또 "신계사 복원과 관련해 북한의 유물보존총국 관계자를 만나 기초적인 합의를 했고,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6월께 남측의 설계 실무자를 신계사지에 파견키로 했다.



◇경주 감은사지 東탑에서 국보급 금동사리함이 발견됐다.

국보급 신라금동사리함 발견

감은사지 東塔 무늬세련 · 정교 '공예걸작품'

경주 감은사지 東탑(국보 제112호)에서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급 금동사리함이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문화재관리국과 관계전문가들은 4월 25일 감은사지 東 3층석탑 해체보수공사를 실시하던중 3층 탑신부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금동제 사리함을 발견했다. 이번에 발견된 금동사리함은 금제이 완연하고 무늬가 뚜렷할뿐만 아니라 역동적이고 사실적인 조각으로 통일신라 최고의 공예걸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체보수공사에 참여한 동국대 문명대교수는 "동탑의 사리장치는 정교한 모습을 띤 영원불멸의 불교사상과 호국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체로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해체보수공사에 앞서 문화재발굴조사 사상 최초로 발원문과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등 불교의식이 봉행됐다. 〈경주=이윤호 기자〉



◇김영수 장관



◇서석재씨



◇박세일 수석



◇이각범 수석

김영수 문체부장관 적극 동참

반가상 보급 서석재 · 박세일 · 이각범씨도

김영수 문화체육부장관은 4월 24일 현대불교신문사가 전개하고 있는 '중 · 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상 보급' 운동에 동참했다. 김장관은 "데생용 미륵반가상의 보급은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민족정신과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심어주는 문화교육"이라며 자녀의 모교인 "예일초등 은평중 대일고에 지원해달라"고 3구좌를 신청했다.

서석재 국회의원당선자도 "종교를 초월한 민족적 국민운동"이라며 10구좌를 동참했으며, 이와 함께 박세일 사회복지수석 이각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도 각각 2구좌씩 동참했다.

동참해주신 분

△남지심 우리는선우 공동대표: (1구좌) △현각 성불원주지: (5구좌) △자성 울진보광사 주지: 울진여고(1구좌) △수진 용화사 주지: 담양공고 담양실고 추성고 (3구좌) △무진 우암사 주지: (1구좌) △동진 충용사 주지: 거창대성고(1구좌) △도광스님: (1구좌) △김장자: (1구좌) △김수봉: (1구좌) △박종원: 청주여고(1구좌) △정구연: (1구좌) △이성룡: 춘천공고(1구좌) △김해광: (1구좌) △김덕구: 구례여중(1구좌) △송홍달: (1구좌) △현정: 경기고(1구좌) 〈4월25일 현재 총156구좌〉

어떻게 추진되나

◇모형제작: 석고보다 견고한 FRP로 축소 제작(원형 높이 93.5㎝를 높이 55㎝ 폭 35㎝로)

◇기술지원: 법종사 (대표 김철오)

◇보급기간: 1996년 4월부터 12월31일까지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누구나 가능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수령학교 지정 가능(지역학교 · 출신모교 ·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구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은행입금 후에는 반드시 현대불교신문사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중 · 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상을 보냅시다

5월 5일 남한산성 걷기대회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현대불교신문은 청소년상담기관 마음의전화(대표 도각스님)와 공동으로 5월5일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청소년 남한산성 걷기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불교청년회가 주관하고 목아박물관 협찬으로 추진되는 이 행사는 전보삼교수(신구전문대, 만해기념관관장)가 인솔, 현장 강의로 백안 각성스님과 승군의 얼이 깃든 호국불교의 성지 남한산성(사적 제57호)을 순례하며 역사도 배웁니다. 또한 자연환경도 가꾸며 가족사랑도 느끼는 산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참가자 전원에게는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에서 제공하는 호신불목걸이를 증정하며, 퀴즈대회 상품도 푸짐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어린이날 호국불교 성지에서"

△일 시: 5월 5일(日) 하루
△참가대상: 초 · 중 · 고교 학생과 부모 선착순 200명
△출발 및 집결지: 조계사 앞 집결(오전8시)→ 양재구민회관 앞 경유(오전8시30분)→ 남한산성 남문 도착(오전9시)
△참 가 비: 1인 1만원
△준 비 물: 도시락 모자 기록장
△특기사항
●온가족 참여자는 퀴즈대회시 추첨하여 특별상 시상 ●비디오촬영을 실비로 제공 (신청가족에 한함) ●가족끼리 개별 도착 가능
△문의 및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마음의전화 (02)747-5787

초파일 앞두고 사찰방화 '비상' 15면
불교 재난구조대 발대 15면
데생용 미륵반가상 보급 의의 2면
장애아동 특수교육센터 개설 14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전자게시판 보다피아 http://www.bud.co.kr

證明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月下 大宗師
靈鷲山中 九龍吐水

玉龍子 스님의 구도적 예술세계



민족평화통일 · 2002년 월드컵한국유치 · 불교중흥 기원 불교문화제전
會主 이목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영축산 통도사 비구 玉龍子 석지형 스님
大吉祥圖 作品展



修行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玉龍子석지형 스님이 불국정토성취의 원력으로 20여년간 吉祥圖를 연구하고 정진하여 포교 · 복지 · 장학불사의 원력으로 한점한점 밤새워 기도하며 그려낸 길상도 작품전이 1996년 3월 21일 부산일보사 대강당과 전시관에서 개막되어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月下 大宗師 예하께서 친히 임석하사 證明 하신 가운데 봉행되었습니다. 수많은 관람인파와 불자님의 동참으로 대성황리에 회향되었던바 불기 254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거룩하옵신 부처님 나투심을 봉축하는 大吉祥圖展을 자극정성 마련하며 장엄하고 환희충만한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기념 대법회 : 1996. 5. 7(화) 오전 11시
- 장 소 : 잠실 호텔롯데월드 3층 특설대법회장 · 전시관

불교문화대강좌: 5.7~5.11 매일 오전11시~오후1시(3층특설법회장)
작 품 전: 5.7~5.11 매일 오전10시~오후6시(3층 전시관)

- 초 청 법 사 : 무진장 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성암도 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송석구 박사(동국대학교 총장), 서윤길 박사(동국대 불교대학장), 보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고은 선생(시인), 남지심 선생(문인), 정병조 교수(동국대)
- 불자연예인 : 김병조(방송인), 김흥국(불자가수 회장), 김혜련, 두레 外

※ 기념품 증정 : 참석하신 불자님께 玉龍子석지형 스님이 그린 길상도가 새겨진 호신불 목걸이와 아름다운 엽서세트, 손염주 등을 정성으로 전하여 드립니다.

◉ 주 관 : 서울소림불교아카데미 소림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 511-6210~5 FAX:511-6216
◉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BBS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32 서울소림불교 장학회 소림불교복지회 금강불교아카데미총동문회 창원 구룡사신도회 불교신문사 법보신문사 현대불교 주간불교 대한불교신문사 종교신문

사 설

문화유산 넘어 '정신유산'

—데생용 미륵반가상 보급 의의

한국인에게 있어서 근대화는 곧 서양을 뜻했다. 표어(標語)인즉 '東道西器'이었으나 압도적인 서양의 물질문명 앞에 현실적인 대응방법을 강구할 겨를도 없이 서양문물을 받아들인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일제시대의 교육제도는 교과 내용이 혹시나 민족적인 긍지를 갖게 할 수도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심한 경계를 받았다.

국보 제83호 미륵보살반가상은 한국인의 혼을 나타내는 구상물이다. 1976년 동경, 경도를 포함하여 일본 중요 도시에서 열린 '한국미술 5000년전'은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었다. 그 가운데 특히 큰 감명을 준 것은 바로 미륵반가상이었었다. 일본 국보 제1호는 미륵반가상과 꼭 닮은 것이다. 일본인은 그것이 한국산이라고 분명히 밝히고는 있지 않다. 그들의 국보 제1호가 한국산이라는 사실이 속 얕은 일본의 국수주의적 감정에 역겨웠던 것도 같다. 그러나 그 유래가 한국산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으며 그 재료가 한국산 소나무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두개의 반가사유상이 같은 작가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확신케 할 정도로 닮아있다.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K. 야스퍼스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시간적인 것 속박을 초월한 인간의 가장 청순하고, 가장 원만하고, 가장 영원한 모습을 지닌 모습의 상징이다"고 격찬한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예술성을 지니는 이 미륵반가상을 단순한 민족적인 차원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정신적 유산으로서 자랑한다. 진정한 선의 마음이 인류적 차원으로 승화된 이 불상은 종교와 인종의 차이를 넘어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킨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처럼 훌륭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간 우리의 교육이 제대로 민족적 차원에서 배려되기 보다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외국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말로는 GNP 1만불 시대라고 한다. "산은 높기만 해서 귀한 것은 아니다." 스스로의 문화유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이 어떻게 해서 일등국민일 수가 있는가!

만시지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현대불교신문이 주동이 되어 전국 중·고등학교에 이 불상모형으로 데생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현재까지 중·고등학교의 미술 시간에 데생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은 대부분이 희랍·로마시대의 작품에 대한 석고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만일 이 운동이 널리 보급된다면 미술교육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위대한 불교미술이 모두 그러하듯이 미륵반가상은 단순한 미술품은 아니다. 이 작가는 분명히 독실한 불교도였을 것이다. 원목에 끌을 한번 댈 때마다 염불하며 합장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했을 것이다. 그 속에는 한국인의 얼이 담겨 있다. 다만 일선학교에서 종교재단이 설립했을 경우 편견으로 접수를 사양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기해야 할 점은 데생용 미륵반가상 모형은 불상이 아닌 한국미의 응집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앞서 인용한 K. 야스퍼스의 "인간의 가장 청순하고, 가장 원만하고, 가장 영원한 상징"이라는 말을 다시 상기하자. 여기에는 종교의 차이를 초월하는 깊은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경지가 있다. 비록 석고라 할지라도 미륵반가상의 모습은 우리나라 젊은이에게 자비와 예술혼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열린마당

데생용 미륵반가상

현대불교신문이 벌이는 전국 중·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상(국보 제83호) 보급운동이 각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민족정신과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심어주자는 이 운동의 취지가 각계 지도층 인사를 비롯 교사·부모에게까지 폭넓은 공감을 얻고있다. 데생용 미륵반가상이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미술교육에 끼치는 교육적 의미를 듣는다. 〈편집자 주〉

실기·감상 '일석이조' … 금강역사 보급도

조승환 〈동국대 교수·미술학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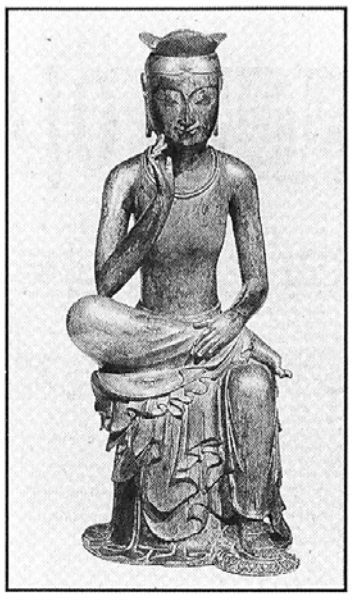
고대 그리이스 로마의 조각을 아직껏 데생용으로 쓰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으니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을 미술실기에 쓴다면 우리 학생들이 그저 국보로만 막연히 알고 있는 문화재를 가까이서 대하고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공이 아닌 일반미술교육에서는 표현보다도 감상안목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 미술교육에서는 안목을 키워주는 감상훈련이 미비하다. 미술시간에 이러한 기본을 형성시켜 주어야 한다.

중·고교에 미륵반가상 모형을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이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피부로 느끼며 실기와 감상을 겸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급용 반가상은 정교하게 만든 원형과 같은 모형이면 더 좋을 것이다. 미륵반가상뿐 아니라 금강역사, 석굴암부조상 등도 일반에 보급하면 좋은 훌륭한 데생용이고 감상용이다.

입시에 우리 문화재인 반가상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중·고교뿐 아니라 일반 미술학원에서 취급되는 등 널리 보편화되어야 가능하다. 데생용으로는 전체보다 얼굴 표정이 살아날 수 있게 상반신을 확대한 모형보급이 어떨까 한다.



종교초월 '우리 혼 심기'에 동참을

정영호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은 예술성에 있어서 우리 전통문화유산의 최고의 정수임은 물론 세계적인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는 뛰어난 작품이다.

이 반가상을 단순히 불교문화재로 치부해 버리기 쉽지만 우리 고대문화의 주류가 불교미술이며, 1천6백여년간 우리 문화에 뿌리박혀 있는 '우리 혼'임을 되새긴다면 분명 반가상은 불교미술이기 이전에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유산인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에서 금동미륵반가상을 학생들의 데생용으로 보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선 반가원했다. 물론 타종교인들은 이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이야말로 박수를 치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우리의 전통을 잃어가고 있는 요즘,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우리 것을 알려 그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여기에 내 종교, 네 종교를 따진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편협한 사고인지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이 기회가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우리의 얼을 되살리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

청동원형 보급으로 문화의식 배양

최인수 〈서울대 교수·조소과장〉

그동안 우리 미술계는 서양조각모형들을 일본에서 가져다 기초 데생용으로 써왔다. 우리 서울대는 그러한 관습을 버리고 엉터리 복제품을 대상으로 한 기계적인 묘사가 아니라 데생용으로 살아있는 대상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문화재를 가깝게 하자는 차원에서 금동미륵보살반가상 모형을 중·고등학교에 보급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좋다고 본다. 그러나 미륵반가상이나 석굴암본존상 등 우리 조각문화재들을 살펴보면 해부학적으로는 서양조각에 비해 정밀도가 결여돼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점에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반영된 것이다. 간결하게 생략된 표현을 통해 오히려 전달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드러운 곡선을 통해 천년을 뛰어넘는 그윽하고 온화한 미소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체 해부학적 표현능력을 배양시키는 기초 과정이 데생이라고 볼때 미륵반가상은 그 대상으로 적합치는 못하다. 그러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재를 널리 알리자는 의미에서 보급운동이 일어난다면 사회적으로 의견을 들어 청동제 원형과 거의 같은 모형을 보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 일장 전통 미의식 고취 일조

현대불교신문이 3월20일 대통령 비서실에 건의하신 "중·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상 석고모형 보급건"이 교육부로 이첩되어와 이에 대한 회신을 드립니다. 국보 제83호인 금동미륵반가상을 데생용 석고모형으로 축소하여 전국 중·고등학교에 보급, 학생들이 한국적 미의식을 인식하고 사유의 폭을 넓히는 교육효과를 도모하려는 귀하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성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보급은 하시되 미술시간의 사용 여부는 학교 자율에 맡겨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 15일 교육부장관

서양식 미술교육 보완하는 계기로

김리나 〈홍익대 교수·미술사연구회장〉

6~7세기 동양최고의 불교조각품인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을 전국의 중·고교에 데생용 석고모형으로 보급한다니 우선 반갑다.

늦은 감은 있지만 미술에 눈뜨기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몸에 배도록 해주는 이같은 움직임이 서양식 위주의 틀에 박힌 미술교육을 보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미륵반가상은 전체적인 곡선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얼굴 표정을 담은 뛰어난 조형예술품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보살상이 실제 인체보다 단순화되어 있어 치마주름을 제외한 얼굴과 상반신 부위의 굴곡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데생연습시에 명암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또다른 불교조형품을 선정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를테면 경주 석굴암에서 출토돼 경주박물관에 보관중인 금강역사상의 두상(頭像)은 음영이 뚜렷해 데생용으로 적합할 듯하다.

아무튼 타종교와의 마찰이 일지 않게 유의하면서 전통미와 민족정서를 담은 데생용 미륵반가상을 보급한다면 서구위주의 미술교육 현장에 한국미를 심는 신선한 문화운동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만평 박구원



진작 생각하셨어야죠!

목어

삼보 훼손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올해도 또 절에서 불이 났다. 한 사찰도 아니고 하루밤에 서울 삼성암과 인근의 본원정사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했다. 하루걸러 22일 새벽에는 두 사찰의 중간지점에 있는 화계사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화계사의 경우 빨리 발견 조기진압을 했다.

경찰은 방화로 '추정'한다고 했으나 누가 보아도 분명한 방화다. 화계사에서는 방화를 입증할 수 있는 시너를 뿌린 흔적과 인화물을 담았던 용기를 발견했다.

그렇다면 누가 그랬을까.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의 사찰은 불안하다. 매년 초파일 무렵이면 크고 작은 훼불사건이 연례행사처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초파일 훼불로 널리 알려진 사건이지만 90년 5월 개국을 앞둔 불교방송 법당에 이교도로 보이는 괴한 2명이 침입하여 불상과 기자재를 파괴했을 때 불교계는 울분을 금치 못했다. 방화사건만 해도 한 두 건이 아니다. 초파일 무렵은 아니지만 문화재로 꼽히는 금산사 대적광전이 이교도의 방화로 86년 소실됐다. 이 사건은 용의자의 자백까지 받았으나 물증확보를 못해 무혐의로 처리됐다. 1년후 제주 탐라교회 신도가 관음사와 대각사를 전소시켰다. 경찰은 그를 '정신질환자'라고 밝혔다.

사찰건물을 파괴하고 불상을 넘어뜨리고 십자가를 그리고, 심지어는 불상에 오물을 바르고,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훼불이 꼭 초파일 무렵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찰은 자체 경비에 나섰다. 천은사에서는 경비용 진도개를 길렀는데 누가 독약을 먹였다고 한다. 화계사는 스님들로 방범대를 조직했다. 경찰도 잠복근무중이다.

절은 단순한 불교사원이 아니다. 민족의 얼이 숨쉬고 있고 삶을 값지게 하는 국민의 도량이다. 따라서 사찰수호에 수사당국은 물론 종교인, 나아가 국민 모두가 나서야겠다.

더구나 사찰은 불법승 삼보의 상징이다. 인천의 스승이신 부처님께 예배하고 그 가르침을 받들어 배우고 널리 펴는 성스러운 곳이 바로 절이다.

지장경에 "만약 중생이 삼보를 비방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했다. 지옥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훼불감시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말씀

효도시기 놓치지 말라

자식은 부모때문에 해와 달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은혜는 지극히 무거우니라. 그러므로 부모님께 항상 공양하고 효순하여 공경하되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증일아함경〉

협찬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주지 자 성
TEL.(0565)82-3004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음악제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는 만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탄생을 봉축하는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봉축음악제를 봉행합니다.

KBS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봉축음악제는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24일 KBS 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봉은사 사중만의 행사가 아니라 불교계 전체를 대표하여 불교 음악의 진수를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이 봉축음악제에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기원합니다.

불기 2540년 4월 일
봉은사 대중 일동 합장

◀ 일시 : 불기 2540년 5월 8일 저녁 7시
◀ 장소 : 여의도 KBS홀
◀ 주최 : 한국방송공사 KBS
◀ 주관 :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 협찬 : (주) 대우
◀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음악회 공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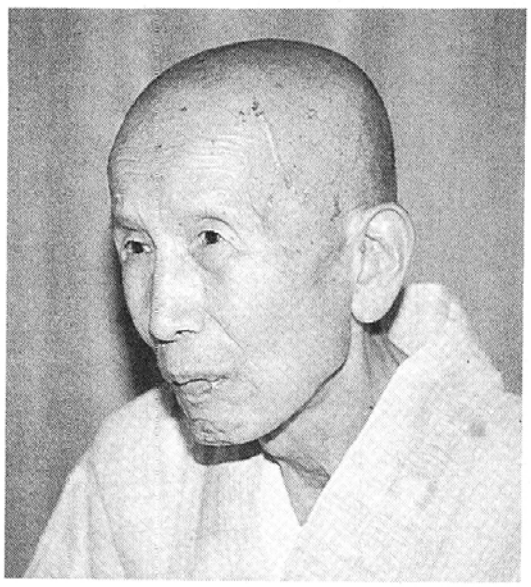
총출연진 : 합창단 200명 (봉은사 남녀 혼성 4부 합창단), 예불 출연 스님 1백여명, KBS국악관현악단, 기타 출연진 총400여명

● 제1부 : 도량석, 종성, 법고, 운판, 목어, 대종, 헌다, 예불, 승무, 바라춤, 탑돌이(문현 스님 외 승가대 스님 다수)
● 제2부 : 합창 (지휘:유동열, 반주:KBS 국악관현악단) 독창(테너 최조웅, 소프라노 김현숙)
● 제3부 : 유명 불자 국악인 초청 공연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주지 무상
전화 :(02) 511-6070/4

"참나 깨달아야 인류평화 가능"

만산이 푸르름으로 짖어가는 곡우(穀雨)에 남도땅 백양사에서는 재적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사전에 다례를 올린다. 4월20일, 금년 곡우에 1백20여명의 문중스님들이 다례를 올리고 산중총회를 열었다. 조계종에서는 5번째로 개설된 백양사 고불총림의 방장을 선출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원로 수산스님이 "최고의 선승이자 백양사 조실인 서옹스님을 방장으로 추대한다"고 제안하고 참석한 모든 대중이 만장일치로 서옹스님이 고불총림 초대방장으로 추대되었다. 백양사 운문선원에서 서옹스님을 만났다. 〈편집자 주〉



◇백양사 고불총림 초대방장으로 추대된 서옹스님은 조사선풍을 일으키는 것이 원력이라며 참사람운동을 통해 새로운 인류역사를 창조하자고 말했다.

백양사 고불총림 초대방장 서 옹 스님

-먼저 고불총림개설과 방장추대를 축하드립니다. 고불총림은 일제시대에 만암스님이 이곳 백양사에 개설했으나 6.25때 파괴되어 맥이 끊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총림이 복원되고 초대방장으로 추대되어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덕이 없는 사람이 중책을 맡게되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무엇보다 만암스님의 원력을 다시 잇게 되고 백양사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반갑고 감사할 뿐입니다.

불교세가 약한 호남불교를 중흥시키겠다는 의지도 강했던 것입니다.

만암스님은 생전에 부처님처럼 살았습니다. 편해서야 어찌 수행이 되겠느냐며 이판스님은 오직 공부만 하도록 하고 사판스님은 절지키며 포교에 앞장서도록 했습니다. 당시 고불총림 수좌들의 계행과 시간지키는 일은 전국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요즘은 한국불교뿐 아니라 전인류에게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로 생각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현대인 정신잃고 사는 물질과학의 노예
"조사선 살리는 선원중심 총림운영 역점"

고불총림은 인간의 본성을 불법으로 해결하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사실 여법히 수행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다 잘 됩니다. 불법을 바탕으로 사찰을 운영하고 사회를 운영할 때 세계평화는 이룩될 것입니다.

-고불총림을 처음 개설한 만암스님의 발원은 무엇이었습니까.

▲50여년전이나 지금이나 한국불교는 여전히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조사선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만암스님께서는 위기의 한국불교를 바로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지역 여러 사찰을 묶어 고불총림을 개설했습니다.

▲르네상스이후 공업시대로 접어들면서 물질적으로는 풍부하지만 물질에 끄달려 주체성(정신)을 잃고 사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과학문명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을 기계로 보게되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인간과 인간의 질서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불교는 우주와 인간이 둘이 아닌 하나로, 개체가 분명합니다.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가 서로 존중하며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래자리인 참나를 깨닫는 것으로 참선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스님은 참나를 찾기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오래전부터 '참사람운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참사람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과학문명 병폐로 인류가 멸망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보면서 구제의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선(禪), 불교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참사람운동이란 하루에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우리의 좋은 전통인 참선을 실천하고 진리에 순응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확철대오는 아니어도 더많은 사람이 참선을 통해 참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사회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되며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것입니다.

-불자뿐아니라 국민적으로도 고불총림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고불총림의 승풍을 어떻게 세워나가시겠습니까.

▲조사선풍을 일으키는 것이 저의 원력입니다. 조사선이 중국에서 일어나 세계적으로 발전했으나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맥이 끊어졌습니다. 선이라야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마당에 세계적으로 선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불총림은 조사선을 살려 한국불교뿐 아니라 세계평화의 기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행시설을 고루 갖추어 누구나 고불총림에서 수행하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특히 백양사에서는 5년째 〈벽암록〉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벽암록〉은 선을 설파한 것 가운데 으뜸입니다. 앞으로 고불총림에서 〈벽암록〉 강의와 함께 조사선풍이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백양사=이준엽 기자

"분종·창종 가는 길 아니다"

1면에서 계속

선학원 이사 11명중 9명의 스님이 일괄 제적원을 제출한데 대해 교계는 조계종과 선학원 분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적원을 제출한 법진·성열·자민스님은 '분종'이나 '창종'이 바람직한 해답이 아니라고 역설한다.

"양측 모두 삼보정재 보존을 위해 상호연구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학원 이사스님들은 종단이 내놓은 징계이유 '종단재산분열조장'에 대해 이같이 입을 모았다.

그럼 선학원측은 왜 대화의 장에서 나와 막가는 길을 선택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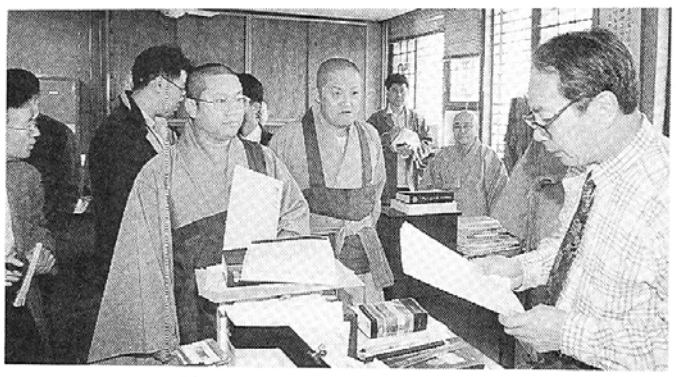
개혁종단이 개정 종헌에 법인 관련조항(종헌 9조 3, 4항)을 신설하고 정관변경을 요구한 점에 대해 선학원은 삼보정재를 관리하는 틀이 달라 행정체계 통합이 쉽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통합'은 바람직하고 효율적임을 시인한다.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를 전제하면서.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얽혀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내자는 것이다. 여기서 논쟁은 불가피 할 수밖에 없었다.

조계종이 선학원 운영문제를 숙제로 삼은 것은 이미 10여년전. 그런데도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다 개혁종단이 결단을 내렸다. 종단입장에서는 긴 대화보다는 빠른 해결을 기대했다. 그런데 다 종단측 대화주체가 수시로 바뀌면서 대화는 실질적인 각론을 끌어내지 못하고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따라서 '교육제한' 그리고 '등원' 조치까지 나왔으며 이에 맞서 선학원 측도 '제적원'을 제출했다.

'자체신분증'으로 승려증을 대신하겠다는 선학원. 그러나 진정한 개혁종단이 구성되면 '언제든지 대화에 임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종단입장에서는 '진정한 개혁종단'이라는 말이 목에 가시일 수 있다. 진정 '분종'과 '창종'을 바라지 않는다면 양측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부처님 오신뜻이 어디 있는가를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 교계의 시각이다.



◇지난달 24일 선학원 이사 9명이 조계종에 제적원을 제출했다.

시 론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

"가족은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족을 생각할 때면 으레 갖게 되는 테마이다. 우리는 가족이 늘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만일 한시라도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 속의 가족을 보자. 그런 가족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가족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의 감정과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장이기도 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절대적인 관계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오직 사랑만 있고 갈등은 없는 가족은 우리의 상상 속의 모습, 즉 신화적인 모습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장벽

가족 역시 다른 모든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성과 연령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이다. 어쩌면 가족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없다면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더 이질적인 집단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가족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추구함이 없이 자연스러운 사랑의 관계로 발전할 것이란 생각은 위험한 것이다.



이 동 원
〈이화여대 교수·사회학〉

건강한 가족은 이와같은 우리들의 신화를 깨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화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양분과 물이 필요하듯이 가족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양의 양분과 물을 주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시간과 노력의 투자인 것이다.

우리 부모들은 가난과 궁핍의 환경속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 자식들에게는 부모들이 지나온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불리 먹을 음식도 주었고 피아노도 가르쳤다. 그러나 그런 부모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여유를 가지고 비로소 자식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미 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식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식들은 부모와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서로가 같은 말을 해도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우리 부모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주었지만 정작 자식들이 필요로 한 것은 부모들이 주는 것 이상이었다. 즉 경제적인 충족은 물론이었고 그 위에 자식들이 더 필요로 했던 것은 우리 부모들과의 시간이었다. 우리 부모들은 그들을 위해 시간이라는 자원을 투자하지는 못했다. 돈을 주고 음식을 주었으나, 생각을 담을 그릇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 부모들은 같은 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어도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된 것이다.

어떤 학자는 요즈음의 가족을 폭풍우에 중심을 못잡고 이리 저리 헤매이는 배에다 비유하기도 한다. 모든 가족들이 뿔뿔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배를 저어 가기 때문에 위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폭풍우 속에 침몰해 버린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우리 가족이 건강한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족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족 모두가 함께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가족주기별·단계별로 구체적 목표를 정하여 모든 구성원이 그 계획안에서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가족은 항상 갈등을 내재하고 있기 마련이므로 갈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하여 가족 모두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가족구성원 가운데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가족의 신화를 벗어나서 공동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갈 때 비로소 그 가족은 건강해질 것이다.

끝으로 가족·문화학회가 정한 '건강한 가족을 위한 다짐'을 소개한다.

'건강한 가족'을 위한 지침

건강한 가족이란 △서로 나누는 삶 △서로 아끼는 삶 △서로 대화하는 삶 △서로 이해하는 삶 △자신을 완성하는 삶 △이웃과 함께하는 삶 △사회로 열려있는 삶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족구성원 모두가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어야 하며, 서로 아끼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가족 속에서 자신의 개성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서로가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가족만을 위한 가족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밝고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해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가족의 삶을 사회로 열어놓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가족의 건강도, 우리사회의 건강도, 나아가 이 세계의 건강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음을 청정하게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총괄표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모든 행사가 원만히 회향되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행 사 명	장 소	일 시	집 행 부 서
법요식	봉축 법요식	조계사 대웅전	5·24 10시	봉축위원회
경축기념행사	1. 연등축제	동대문-조계사	5·19 16시	봉축의원회
	2. 시청앞 점등식	시청앞 광장	5·14 19시30분	봉축의원회
	3. 원각사지 탑돌이	탑골공원	5·22 19시	봉축의원회
	4. 이철수 불교 판화전	서남미술전시관	4·24-5·8	불교방송
	5. 북한불교 사진전	평불협강당(조계사건너편)	4·26-5·9	평불협
	6. 연꽃 노래잔치	동국대 중강당	4·28 13시	서울불청
	7. 건강가족 마라톤 대회	목동 청소년회관	5· 5 10시	목동 청소년회관
	8. 전국어린이 부처님그림 그리기 대회	목아 박물관	5· 5 10시-16시	목아박물관·월간"불광"
	9. 소년·소녀 합창단 연주회	국립극장 야외음악당	5· 4 18시	불교교육 연구원
	10.부처님 오신날 봉축 음악제	KBS홀	5· 8 19시	봉은사
	11.아동극 "선덕여왕"	동숭 아트센타	5·11-5·12	동쪽나라
	12.부모은중경송	국립극장	5·11-12 16시	불광법회
	13.부처님 오신날 기념 백일장	목동청소년회관 및 주변	5·12 10시	목동 청소년회관
	14.시 낭송회	조계사 문화회관	5·12 17시	현대불교문학회
	15.청소년 문화대축제	역도경기장	5·12 14시	포교원
	16.봉축 심포지움	조계사 문화회관	5·16 14시	한국불교사회 연구소
	17.부처님 오신날 학술 세미나	동국대 학술 문화관	5·17 13시30분	동국대 불교문화원
	18.윤이상 불교음악회	동국대 불상앞	5·17 17시	동국대
	19.열린음악회	불국사	5·18 17시	KBS
	20.경국사 합창단 발표회	KBS홀	5·18 19시30분	경국사
	21.불교 웅변대회	조계사 대웅전	5·19 14시-17시	불교 웅변인협회
	22.BBS 공개방송	종묘공원	5·19 16시	불교방송
	23.봉축 꽃꽂이전	봉은사(삼성동)	5·19-5·21	한국연화 꽃꽂이회
	24.불교문화 세미나	조계사 문화교육관	5·20-23/14시-19시	문화사업부
경축기념행사	25.만석승 놀이	조계사	5·23 19시	우리마당·조계사청년회
	26.불교 문화대제전	여의도 광장	5·23-6·1	btn
	27.청정국토 한마당	조계사	6·1-6·2	문사부·환경교육원
	28.전방 OP점등식	애기봉	5·2 18시 30분	조계종
	29.전방 OP점등식	백암, 아산, 백석, 을지 전망대, 통일전망대, 도라, 멸공, 필승, 종각 태풍전망대		종단협·군승단
내 용	행 사 명	장 소	일 시	집 행 부 서
자비의손길	1. 경사로 설치 및 장애불자 시 낭송회	조계사 대웅전	4·20 16시	문화사회부
	2.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날	조계사	5·12 13시	문화사회부
	3.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후원의 밤	롯데호텔	5·15 19시	문화사회부
	4. 복지시설 방문		5월중	문화사회부
	5. 탑골공양	탑골공원	5·14 12시	사회복지재단
	6. 일선 군법당 위문품 보내기		4·10-5·24	군불교 진흥회
	7. 불우이웃돕기		봉축기간 5·1-5·31	전국 각 사암, 종립학교, 신행단체
	8. 북한수재민 돕기모금		봉축기간 5·1-5·31	종단협
	9. 입원환자 "등"선물	각 병원	5월중	병원법당
	10.경로위안잔치	도선사	5·4	도선사
	11.노인재소자 위문잔치	청송 감호소	5·7-8	연예인 불자회
	12.재소자 위문 및 수계식	안양 교도소	5·15	도선사
	13.경로위안잔치	삿갓봉(상계동)	5·15	흥국사
	14.사랑의 편지쓰기	월곡 청소년 센타	5·18 15시	월곡 청소년 센타
	15.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	목동 청소년회관 교육실	5·18 15시	목동 청소년회관
	16.헌혈 캠페인	동대문운동장·조계사입구	5·19 14시/5·24 10시	생명나눔 실천회

■ 봉축위원회에서 제작 개발한 휘장 및 캐릭터를 상업용으로 무단 사용하게되면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제재를 받게 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 무 원 장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장 송 월 주

법회 안내

악수사(051)555-4332

인등기도 1~3일(음) 오전10시
조상천도 18일(음) 오전10시

공덕원(051)625-2253

지장천도 매월14일(음) 오전11시
정기법회 매주 화 오전11시
지장불교대학강의 매주 수 오전10시30분

대명 심인당(053)625-6627

자성일불공 매주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학생법회 매주 일 낮12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월~일 오전10시

구화사(053)323-4984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기초교리강좌 매주 일 오전11시
보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1시
초발심자경문 및 지장경강의 매월18일(음) 오전11시
금강경강의(박삼중스님) 매월24일(음) 오전11시

청평사(0361)54-1092

일반신도법회 매월1, 15일(음) 오전10시
지장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정법사(0361)262-1085

일반신도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삼운사(0361)241-133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학생회법회 셋째주 일 오전11시
매주 토 오후5시
정기법회 매월 21일 오전10시30분
일반신도법회 토 오후8시30분

용덕사(0371)41-3553

일반신도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원각사(0398)62-5076

학생회법회 매주 토 오후2시40분
군인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일반신도 백상화법회 매월1, 15, 18, 24일(음) 오전10시

장명사(0395)81-7464

인등기도 매월 7일 오전11시

영각사(0345)498-7700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30분
합창단법회 매주 수 오전11시
안산기사회법회 둘째 화 오전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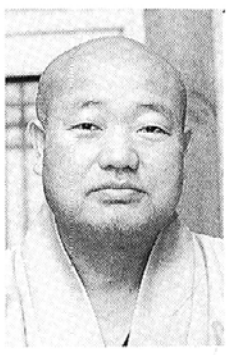
구암사(02)877-2378

초하루법회 매월1(음) 오전10시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반야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성지순례 매월 1회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속의 자연사랑 일깨워야죠"

공해추방운동 불교인모임 2대회장 성 타 스님



"불교환경운동은 더불어 살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종단차원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운동으로 계도하는 역할을 해야지요"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이하 공추불) 제2대 회장에 선출된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환경운동이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하에서만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성타스님은 92년에 불교계 최초로 창립된 공추불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특색을 정하지 못해 왔다며 빠른시일내로 방향을 정립하여 본격적인 환경운동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스님은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과괴와 공해의 급증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인 자연사랑 의지를 일깨우기 위한 '96 자연사랑 환경 포스터와 글짓기를 오는 1일부터 25일까지 공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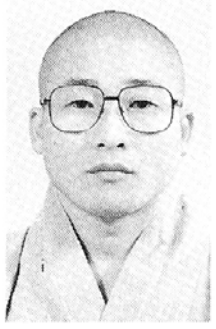
또 △청정국토 한마당 △공추불 그린폰 개설 △환경교실 △환경세미나 △환경바자회등의 사업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타스님은 현재 대구의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시민모임 환경단체인 '대자연 환경보존회'의 회장으로도 활동중이다.

〈원〉

"백마디 말보다 한번 베품이 나아"

10년째 소년가장에 장학금 지급 법 경 스님



"부처님 가르침은 백마디 말보다 한번의 보살행을 펼칠때 피어나는 연꽃입니다."

지난 85년 서울 성수동에 포교당을 개설한 이래 10년째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법경스님은 '불교는 곧 보살행'이라고 강조한다. 으뜸된 가르침으로 법을 설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불교의 더 큰 가르침은 베품에 있다는 생각이다.

지난해에도 일일찻집을 열어 30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6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에는 5월10일 능인정사 지하찻집에서 따뜻한 차한잔을 나누는 '거룩한 인연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불자가수 김흥국씨와 심진스님을 초청, 음성공양을 올리는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다.

"전국의 모든 사찰이 자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은 확실히 책임지는 풍토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신도들의 신심도 그만큼 커집니다."

〈성〉

교차로

부산일보 강당서 법문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은 오는 4일 오후 6시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법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월주스님 예방



이나마루에 수만갈라스님(한·스불교우호협회장·스리랑카 담불라 승단 승정)은 4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 환담을 나눴다.

유해환경 추방대회 참가

현성스님((사)청교련 회장)은 4월 20일 동승동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한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결의대회'에 참석, 탑골공원까지 행진했다.



고려대장경판 법인등록



종림스님(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장)은 4월 15일 문체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사명대사 춘계향사 봉행

신허스님(표충사 주지)은 4월 20일 임진왜란때 승병을 모집,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 5백5회 춘계향사를 표충사에서 봉행했다.

불교TV 전무이사에 취임



정우스님(구룡사 주지)은 4월 25일자로 불교TV 전무이사에 취임했다.

대승사 개원법회 가져



법성스님(대승사 주지)은 4월 20일 월주스님, 향적스님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승사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불교문학의 길' 강연



고은씨(시인·본지 논설고문)는 오는 6일 오후4시30분 동국대 정각원에서 '불교문학의 길'을 주제로 강연한다.

'원각경 강론' 출판기념회

만성스님(부산 해동선원장)은 〈원각경강론〉 출판 기념법회를 오는 3일 오후5시30분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갖는다.

정각선원 개원1돌 법회



권익현의원(국회정각회장)은 4월 29일 국회 정각선원 개원 1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서는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을 법사로 초청한다.

군승 후보생 입대전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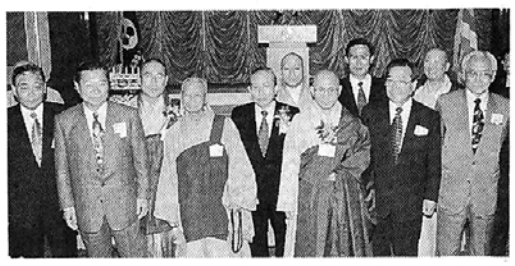


강남석법사(군승단 단장)는 4월 20일 호국원 광사에서 군승 후보생 입대전 교육 회향법회를 가졌다.

정원노인 요양원 위문



구자순회장(대한불교부인회)은 4월 23일 경기도 파주 정원노인 요양원을 방문, 영가천도제 및 위문 활동을 펼쳤다.



불교방송 조해형사장 취임 리셉션

불교방송 창사 6주년 및 신임 조해형사장 취임기념 리셉션이 4월 22일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석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불방송이사장 종하스님을 비롯 이수성국무총리, 김대중 국민회의총재, 김종필 자민련총재, 김윤환 신한국당대표, 이회창 전 신한국당선대위장, 공로명 외무, 안병영교육, 김영수 문체부장관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동국대 경주병원 증축 기공식

동국대 경주병원(원장 서정욱)은 4월 17일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송석구 총장, 이원식 경주시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층 대강당에서 증축 기공식을 거행했다. 3천여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증축되는 경주병원에는 2백병상 규모의 병동과 장례예식장 식당 은행 휴게실등이 들어설 복지동이 새로 들어선다.

"바른 불교용어 보급 기여했으면"

'불교방송 언어교본' 발간 이 선 미 아나운서 부장



"불교방송 아나운서는 올바른 우리말의 보급자일 뿐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이 교본을 제작했습니다."

불교방송 아나운서부가 1년여의 준비끝에 발간한 〈불교방송 언어교본〉 제작의 총책임을 맡은 이선미부장의 말이다. 〈불교방송 언어교본〉에는 일반방송언어의 요건과 발음, 방송전문용어에 대한 해설을 비롯 자주 쓰이는 불교용어풀이, 주제별 용어풀이, 불교용어 바로읽기, 틀리기 쉬운 한자용어등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이 책은 불교용어의 대중화에 한 몫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은〉



조계종 총무원 장애인용 경사로 설치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용 경사로 설치 기념식 및 장애불자 시낭송회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가졌다. 총무원 청사 현관에 설치된 장애인용 경사로는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의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념식에는 월주, 시현스님, 방귀희씨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동참했다.



자비의전화 개통 6주년 법회

자비의전화(회장 정덕) 개통 6주년 및 이전 기념법회가 4월 24일 인사동 자비의전화 교육관에서 봉행됐다. 일면스님(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혜원스님(한마음선원 주지), 정성스님(전국비구니회 호법부장), 안동일 변호사와 상담원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정덕스님은 "중생의 고통과 함께하는 자비의전화가 되자"고 당부했다.



영암 도갑사 정신대할머니 초청법회

영암 도갑사(주지 도현)는 4월 18일 정신대할머니 20여명을 초청, 위안법회와 탑돌이를 봉행했다. 도갑사와 영암군청, 영암군 13개 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도갑사에서 행사를 가진뒤 19일에는 왕인박사 유적지와 선사주거지 목포 한라조선소를 방문했다. 또 이날 영암군청 직원부인들의 모임인 초록회가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생활 속의 불교 ⑦②

네 말도 옳고 또한 내 말도 옳다

조선조 세종 때의 황희 정승은 드물게 보는 공직자의 귀감으로 손꼽힌다.

어느 때 그에게 시비를 가려 달라는 청원이 들어 왔다. 한쪽 말을 다 듣고 나서 황정승은 '자네 말이 옳다'며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자 다른 쪽이 거세게 항변을 했다. 황정승은 다시 '자네 말도 옳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양쪽의 주장을 다 인정한 것이다.

이른바 양시론(兩是論)이다.

요즘 사람들은 흑이면 흑, 백이면 백, 딱 부러진 선택을 좋아한다. 둘 다 옳다는 것은 형편 없이 줏대 없는 사람, 또는 회색 분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소신 있고 실력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느 쪽이 옳은지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내 편인지 네 편인지를 확연히 알 수 있어 좋지 않느냐는 식이다. 그들은 한결 같이 양시론이라면 펄쩍 뛰며 배척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가변성, 개연성 위에 서 있다. 모든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번 일어난 일들이 화석처럼 딱 굳어져 있다면 선택은 쉬울지도 모른다. 반면 상황이 늘 변하고 있다면 어느 한 쪽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한 순간에 옳다고 본 것이 다음 순간에 그른 것으로 보이는 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모든 사물의 실상을 '다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개연성, 가변성을 외면할 수가 없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까닭에 이른바 선택이란 '올바른 것 고르기'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것 고르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제가 고른 것은 올바른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산다. 그런 착각은 때때로 고집이 되고 소신이 되면서 양시론을 줏대 없는 언동으로 매도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착각은 착각끼리 박수를 치고 착각끼리 편을 짜게 만든다. 세상은 그런 착각 때문에 시끄럽고 어수선하며 각자의 삶은 그런 착각 때문에 고달파진다. 말이 많고 탈이 많아지게 된다.



진정으로 줏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들의 모든 판단이란 사실 불완전한 지식에 근거한 것임을 아는 사람이다.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고서야 완전한 지혜란 없다는 점을 아는 사람이다. 양시론의 황희 정승 같은 사람이다.

혹이냐 백이냐의 단정이 결국은 망상·분별·착각인 줄을 아는 사람이다. 네 편 내 편이 따로 없음을 아는 사람이다.

옛 선사께서 이르시기를 '진리의 길은 어렵지 않나니 버릴 것은 오직 간택하는 마음뿐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심이 없으면 도는 절로 탁 트여 대낮 같이 환하니라' 하셨다. 분별하면 통달하지 못한다고 하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로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하셨다. '바른생각' '바른 언동' '바른 마음'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이건 내가 옳고 저것은 네가 그르다는 식으로 갈라 놓는다면 갈수록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세상의 조화를 거스르는 일이 된다. 세상엔 작은 나무가 있으므로 큰 나무가 있고 높은 게 있음에 낮은 것이 있다. 바로 상대성이요, 서로 돕는 상보성(相補性)인 것이다. 그것을 무시함은 조화를 무시함이요, 세상 이치를 외면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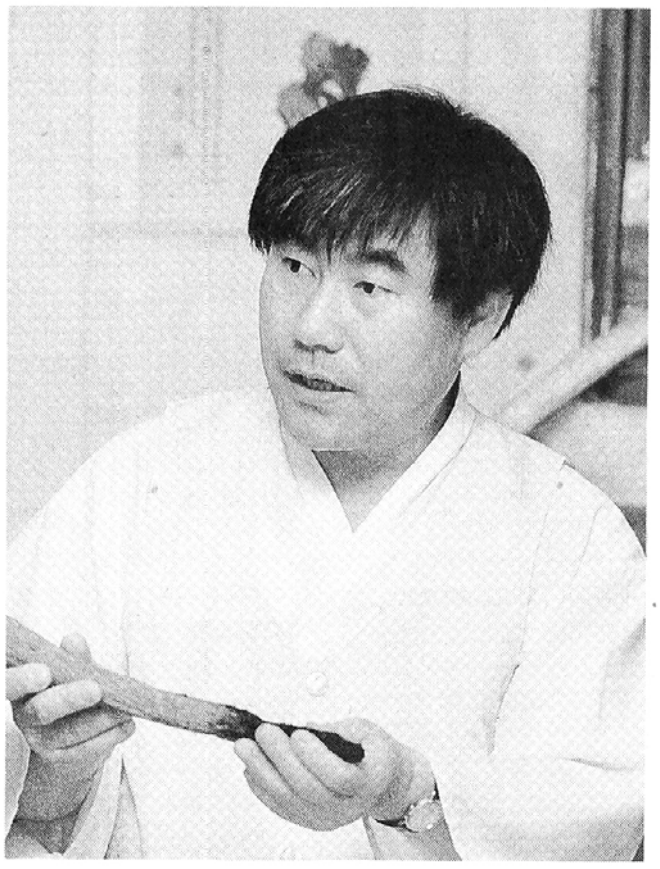
황희 정승의 양시론은 바로 그 상대성을 설파한 것이다. 시비 분별을 떠나 양쪽 모두를 수용하는 게 불법에 이르는 길이다.

협찬 : 한 용 수

옛사람들과 대화 '감정 비결'

산문박의 禪

고서화 감정 **김선원** 씨



옛물건 감정한다는 것은 값을 매기는 일이기보다 선인 체취 통해 정신 배우는 일

인사동 대동서학회 서실에는 언제나 묵향이 가득하다.

그 묵향 속에서 회갑을 진작에 넘겼을 것으로 보이는 연로한 묵객들과 서도삼매를 넘나드는 낯익은 사람. 인사동에서는 한복입고 다니는 사람으로 더 잘 통하는 이 서실의 주인이 바로 매주 일요일 오후 KBS2 TV 'TV쇼 진품명품'에서 해박한 지식과 예리한 안목으로 고서화와 전적의 진가를 밝혀내는 김선원씨다.

충남 청양에서 해방동이로 태어난 김씨는 외가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한학과 서도에 입문 했다. 외숙 성백효(전통문화연구회 이사)과 어머니의 영향으로 김씨는 국민학교 입학전에 천자문을 배우고 서예의 기본기를 익혔던 것이다.

그는 연암 박지원의 고손자인 우관 박이양선생에게 한학과 서예를 배웠으며 서울대 미대 1회 졸업생인 항남 정환섭선생에게도 필법을 사사 받았다. 또 광산김씨의 가풍을 이어온 집안에는 고서적이 가득해 어려서부터 고서를 보는 안목도 자연스레 길러 졌다. 한석봉의 글씨로 벽을 도배했을 정도였는데 그것이 귀한 것인 줄 알고 떼어둔 것이 지금도 흙 묻은 채로 보관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고서화나 전적을 감정하는데 김씨가 중시하는 요건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그 시대의 유행서풍과 일치하느냐 하는 점. 안평대군 시절에는 안평대군의 서체가 풍미했고 한석봉의 시대에는 한석봉의 서체가 유행했을 것이므로 그 시대의 서풍과 일치하지 않으면 동시대 작품으로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학풍을 본다. 이 역시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학풍에서 연유된 내용일때 시대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보는 요건은 종이의 질이다. 종이의 질을 대비하는 기준은 대개 그 시대에 발간된 책력(冊曆)의 지질을 삼는다.

대부분의 서화나 전적은 이 세가지 요건으로 판별이 되는데 김씨는 이들 요건보다 더 중시하는 것이 있다.

"상우천고(尙友千古)란 말이 있습니다. 천년전의 사람과 벗이 된다는 뜻인데 고서화나 전적을 보며 옛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지요. 대화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겁니다. 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예를들면 부친상을 당해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쓴 축문을 보면 나도 그 슬픔을 느끼게 되고 술에 취해 쓴 글을 보면 나도 취한다는 겁니다. 나는 술을 마실 줄 모르지만."

그러니까 옛 사람의 체취나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는 물건을 만나면 마음의 대화를 통해 내용을 느끼고 그 진위여부도 알아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짜를 만나면 분노를 느낀다.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고귀한 선조의 이름을 더럽히는 얕은 상술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고서화나 전적과의 대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수없이 읽고 쓰고 보는 가운데 길러지는 경지인 것이다.

옛 물건을 감정 한다는 것. 그것은 물건의 값을 매기는 기준이기 보다 선인의 체취를 바로 느끼는 일이다. 그래서 김씨는 진품을 만나면 대화를 통해 옛사람의 정신을 배우고 마음을 읽는 즐거움을 만끽하는데 그 즐거움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다고.

필법을 구사하는데도 김씨는 늘 독특한 방법을 추구한다. 보통의 서예인들은 하나의 필법을 연마하지만 김씨는 고금을 막론하고 두루 섭렵하는 편이다. "누구나 다 하는 필법에 안주하면 발전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래서 그는 갑골(甲骨)문자를 응용하고 손톱과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도 했다. 요즘은 청양 칠갑산에서 채취해 온 칡뿌리로 글씨를 쓰고 있다.

"조선 중엽에 좌의정을 지냈던 허목 선생은 당대 동양 3국에서 최고의 전서가로 꼽혔는데 그 분이 칡뿌리로 글씨를 썼다는 기록을 보고 시도한 것입니다. 칡뿌리로 쓴 글씨는 매우 거칠죠. 그러나 그 거친 필체는 인간의 본성을 일깨우는 굳센 맛이 있어요. 특별히 다듬이질해 만든 닥종이에 쓰는 이 글씨의 투박함과 거친 맛으로 인간본연의 성품과 그에 순응하는 삶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제대로 된 글씨가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김씨는 "글씨는 마음의 거울이므로 스스로 평온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면 그만큼 곧은 글씨가 되고 흰쌀리고 어지러우면 글씨도 난잡해 지니까 글씨 쓰는 일은 사람에게 중요한 수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김씨는 매우 거친 필체를 구사한다. 그렇다고 그의 행동이 거칠고 마음이 탁한 것은 아니다. 마음 속에 순한 것을 지녔으나 거칠게 표현하는데도 경지가 필요하다. 그저 "아직은 젊어서겠지요. 나이가 들면서 조용한 필법으로 익어가겠죠"라고만 말하는 김씨는 아직 한번도 개인전을 열지 않았다. 40여년의 필력을 가진 서예가로서 단 한번의 개인전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사뭇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어렵풋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같다.

"아직 내 글씨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임연태 기자

읽고 보고 쓰다보니 안목생겨…가짜보면 '분노'
쓰기 수행 40년 "아직 내글씨 내맘에 안들어요"

잠이 많아 걱정입니다

문 학생입니다. 공부할 것은 많고 시간은 부족한데 잠이 많아 걱정입니다. 잠을 적게 자려하면 그럴수록 더 쏟아지고, 맡겨 놓는다고 하긴 하는데 시험때면 더 많이 자게 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하경림 · 경기 과천시 별양동〉

답 졸리면 자야하고 배고프면 먹어야 하지요. 그게 법입니다. 잠이 쏟아지는데 억지로 안자겠다고 버틴다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농부들도 쉴때는 쉬어야 합니다. 내 몸 속의 온갖 중생들도 쉴 때는 쉬어가야 하겠지요. 맡겨 놓는데도 잠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내 말은 하루 24시간 생활하면서 찰나찰나가 그대로 주인공의 나툼이니 잠 오는 것만 맡기라는 식은 아니지요. 시험 때라서 긴장이 되는 날 오히려 잠이 더 쏟아지는 것은 종일 시험이라는 숙제를 들고 지냈으니 그런 것 아닙니까? 시험을 잘 보고 잘못 보고도 주인공 몫이고 잠을 많이 자고 안자고도 주인공 몫이니 나는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움직일 뿐입니다. 그 이상 다른 방편이 있는 게 아니지요 학생이니까 으레 규칙생활을 할테고요, 그저 할 수 있는 시간에 열심히 할뿐 시험도 놓고 잠도 놓고 가도록 하세요. 잠을 적게자야 시험을 잘 보든지 말든지 할게 아니냐 하고 턱 맡겨 놓으면 그뿐이지 맡겼는데 왜 잠이 쏟아지느냐 한다면 그건 이미 결과에 착이 붙어 있는게 됩니다. 저절로 도는 바람개비에 못질을 한 것과 같습니다.

'생사'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세요

문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 탓인지 경전이나 조사어록을 늘 대하면서도 생사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게 아닐까, 참다운 삶이란 무엇이며 영원히 죽지않는 법은 무엇인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깨달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편이 좋은지요. 이 가슴을 펑 뚫어주는 가르침을 바랍니다. 〈이인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답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이지요. 제행무상이라 하지 않던가요. 그러니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이란 없습니다. 진리를 일컬어 영원하다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진리는 진리 그 자체일 뿐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이 붙질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쩌나 하신다는데 인생이란 누구나 한철 놀러 나왔다가 가는 것 아니던가요. 마치 배역을 받고 무대 위에 올라가 막이 내릴 때까지 맡은 역을 충실히 하는 배우와 닮았다고 할 수 있지요. 아마도 공부에 진전이 없이 하루하루 보낸다는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공부란 어디 목표를 정해놓고 길 떠난 그런 것이던가요.

깨달음도 나 나온 자리에 있고 더디다는 생각도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일체를 나온 구멍에 되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푸른하늘인데 구름에 가려 있을뿐이듯이 자성이 본래 청정한데 무명에 가려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름 걷히면 그냥 푸른하늘인 것이지 없던 하늘이 어디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경전이나 조사어록에도 다 있는 얘기입니다. 방편을 물으시는데 그 방편 또한 진작에 가르침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가르치기를 '모든 것은 나의 근본인 주인공의 나툼이라 믿어 행주좌와 중에 '나'라는 생각을 쑥 빼고 주인공에 놓고 맡기라'고 합니다. 방법이라고 한다면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지요.

본란을 통해 여러차례 말씀 드렸으니 지나간 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아픈게 부모 因果인지

문 오래 기다렸다가 얼마전에 첫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애기가 갑자기 아프더니 병원마다 무슨 병인지 알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전생에 지은 인(因)으로 해서 애기가 고통을 받는게 아닌가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형호 · 경기 이천군 부발읍〉

답 이 세상 살림살이를 보이도 금은 금끼리 은은 은끼리 쇠는 쇠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인이 현재의 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픈사람을 곁에서 보는 사람하고 병고를 당하는 사람하고 다 같은 인과에 얽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미 과보에서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일체의 모든 것, 이 우주천지의 모든 것이 나온 근본이 바로 마음에 직결되어 있음을 알고 그 직결되어 있는 마음의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되맡겨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맡겨 놓을때, 이 병이라는 것도 거기서 인과응보로 나온 것이니까 나온 곳에 다시 믿고 맡겨 놓는다면 거기서 알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땅에 엎어졌으면 엎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능력은 누구나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자기가 지은 것 자기가 풀어야 하고 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물이 화해 증기가 되듯이 마음으로 인과응보를 지었던 그 업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 녹아내리게 됩니다.

주인공에서 나온 것이니까 주인공이 고쳐라. 주인공 당신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진정으로 믿어보세요. 그리되면 다시 보살로 재생이 되어 업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몸 속의 모든 세포의 생명들이 활개를 치면서 원활하게 대사를 하게되고 비로소 병세가 낫게 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요 믿음이 낳은 체험입니다.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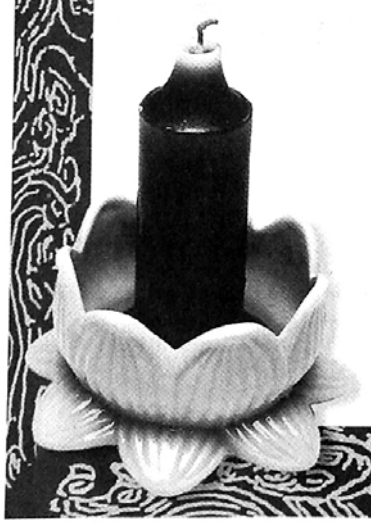
주요 수록내용
영원한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부처님의 탄생
룸비니동산의 큰 광명
누리에 넘치는 기쁨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의 공덕
꺼지지 않는 등불
우리나라의 연등행사
민간의 초파일 풍습
오늘날의 연등공양
부록/초파일 봉축발원문과 불기254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휘장 해설

전연색 화보를 곁들여 봉축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해줄
사월 초파일 법보시용 소책자

부처님오신날

500부 이상 주문시 뒷표지에 해당사찰의 주소, 전화번호, 법회안내, 법회식순, 시주자명단 등을 원하시는 대로 인쇄해 드립니다. 별도 인쇄의 부담이 있으므로 주문은 최소한 10일 이전에 해주십시요.

국판 36면 본문 100SW 사용 원색인쇄
법보시 보급특가 : 부당 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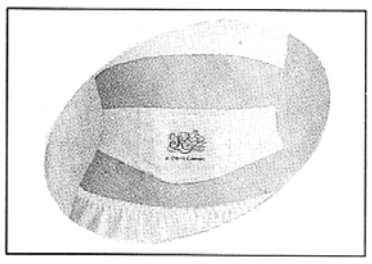
문의처/불교방송 사업부 ☎ (02) 705-5302~6
특판팀 : (02)718-4625~9 부산 : (051)852-2220
서울제1사업소 : (02)706-3502 대구 : (053)755-9537
서울제2사업소 : (012)353-1081 광주 : (062)369-4848
서울제3사업소 : (012)200-7300 원주 : (0371)763-0857
불교방송 매점 : (02)705-5307

전화 문의하시는 사찰에는 견본 1부를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얼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받는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부처님 오신날 학술행사 '다양'

'한국불교 미래' '다종교사회속 역할' 등 다뤄

부처님 오신날 5월을 맞이해 고승들의 생애와 사상을 돌아보고,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불교 학술회의가 다양하게 개최된다.

개교 90주년을 기념해 5월17일 동국대가 개최하는 '다종교 사회에서의 불교의 진로' 학술대회와 5월20일부터 4일간 조계종 총무원이 여는 불교예술에 관한 '봉축기념 특별세미나', 5월14일과 16일 중앙승가대와 한국불교사회연구소가 마련하는 학술회의는 다종교 사회에서의 역할, 불교예술, 복지 등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불교의 방향 및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회암사와 한국불교학회는 5월4일과 11일 '지공·나옹·무학스님 등 삼대화상의 재조명'과 '사명대사 유정의 재조명'을 주제로 각각 학술회의를 개최해 고승들의 생애와 사상을 현대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5월 학술행사

주 제	일 시	장 소	주 최	발 표 자
삼대화상의 재조명	5월4일 오후1시30분	회암사 설법전	회암사	허흥식·이병욱 정원표·신규탁
사명대사 유정의 재조명	5월11일 오후1시30분	밀양시청 대회의실	한국불교학회	김영태·이진오
불교노인복지의 실태와 서비스개선 방향	5월14일 오전10시	중앙승가대 강당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연구소	김용택·최경석 김응철·보각스님
21세기 사회변화와 한국불교의 이노베이션	5월16일 2시	조계사 문화회관	한국불교 사회연구소	송희식·노부호
다종교사회에서의 불교의 진로	5월17일 오후1시30분	동국대 학술문화관	동국대	권기종·김영태 정병조·목정배 현각스님
불교문화	5월20~23일 오후 1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조계종 총무원	홍기삼·김재홍 정부기·박범훈 홍윤식교수등

왕인박사 탄생지 사적지 건의

정립추진위 "영암지역은 신라불교문화의 뿌리"

백제 왕인박사 탄생지에 대해 학계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왕인 박사 탄생지 정립 학술 강연회'가 열렸다.

영암군과 왕인박사 탄생지 정립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해 지난달 19일 영암군민회관에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한병삼 박사(전 국립중앙박물관장)는 '고고학에서 본 영암' 논문발표에서 영암을 비롯한 영산강 유역은 독자적인 문화를 성숙시켜 왔으며 5세기 말에는 백제 중앙문화에 밀려 명맥을 잃게 되지만 영암지역이 독자적으로 이뤄온 문화적 성숙성은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뛰어난 불교문화를 꽃피우는 원동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황수영 박사(전 동국대 총장)는 '백제의 학술과 예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된 금동용봉향로 등 찬란한 백제 미술문화를 한층 깊이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석환 재일 한국사학연구회 부회장은 '일본 내 왕인박사 관련유적'에 대한 발표에서 각종 고고학적 자료의 발굴에 의해 일본문화의 기조를 배양한 왕인박사의 위업은 더욱 더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학들이 왕인을 추모하기 위해 세웠다는 전남 영암군 군서면 소재 왕인석상.

참석자들은 이날 왕인박사 탄신지가 영암군 군서면 성기동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이곳을 국가사적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구촌 비교종교학 세미나

인터넷에 잇단 공개 '관심'

올해 들어 불교와 타종교의 공통점을 찾는 비교종교학 세미나가 세계의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세미나 결과가 인터넷 상에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최초의 비교종교학 세미나는 〈분쟁의 원인: 불교와 힌두교〉란 주제로 지난 2월 방콕에서 열린 종교회의이다. 태국은 그동안 힌두교와 불교의 갈등이 지속됐던 국가. 따라서 이 세미나는 방콕(태국)에 본부를 둔 세계불교문화재단(WBCF) 의장 부펜드라 모디, 태국불교대학, 세계불교교섭기구, 태국불교협회 등이 주관해 태국 종교 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는 "힌두교의 여신 비쉬누는 부처님의 9번째 환생이었다"라며 불교와 힌두교의 공통점을 찾고 "이러한 사실이 두 종교의 화합의 기틀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또한 오는 6월 17일부터 열리는 〈정의와 자비: 불교와 기독교 전통에서〉 역시 주목 받는 종교 세미나이다.

종교간 공통점·상호화합법 연구
윤리·여성·노동등 국제문제도 분석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열리는 이 세미나는 7월26일까지 6주동안 열리는 큰 행사. 존 리더교수(브라운大 종교학)는 "불교와 기독교 전통에서 나타난 '정의'와 '자비'의 의미, 공통점을 탐구하는 자리"라고 세미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세미나는 5월1일까지 참가 신청이 마감되며 존 리더 교수의 인터넷 메일 주소 jreeder@brownvm.brown.edu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오는 7월27일부터 8월3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즈 대학에서는 〈불교와 기독교의 사회참여 경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 〈불교-기독교 학회〉가 주관한 이 세미나에는 데이비드 체플교수(하와이大) 나가토미교수(하버드大) 등을 비롯 유수한 종교학자들이 참가해 현재 지구촌 문제로 떠오른 윤리·여성·노동 문제 등에 불교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

"돈황을 보면 중국사 보인다"

불화·장식통해 정치·문화연구 가능
"비단길 안전 기원이 석굴탄생 계기"

중국 비단길에 위치한 거대한 불교미술의 보고(寶庫) '돈황'의 불교미술과 역사를 조명한 학술강연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돈황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드릭 위트필드 교수(런던대)는 4월20일 연대 동문회관 시청각실에서 도서출판 예경이 주최해 열린 '돈황의 미술과 역사' 강연회에서 '돈황 명사산(鳴沙山)의 千佛洞'이라는 주제로 슬라이드 자료를 통해 돈황의 문화적·종교적 의미와 지리적·역사적 배경을 소개했다.



'돈황의 미술·역사' 강연 런던大 위트필드 교수

◇위트필드교수는 불교미술의 보고(寶庫) 돈황은 동서문화 교류의 교두보로 서기 4세기부터 상업·종교·예술 등 각 분야에서 번영을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내는 위트필드 교수)

돈황석굴의 형성배경은 불교신도들이 긴 사막여행의 안전을 빌고 공양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서두를 시작한 위트필드 교수는 현재 4백92개의 장식 석굴들로 이루어진 돈황석굴은 일반적으로 千佛洞이라 불리며, 불교순례의 중요한 거점인 동시에 뛰어난 불교 회화와 조각들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세계에서 가장 광대하고 뛰어난 불교미술 관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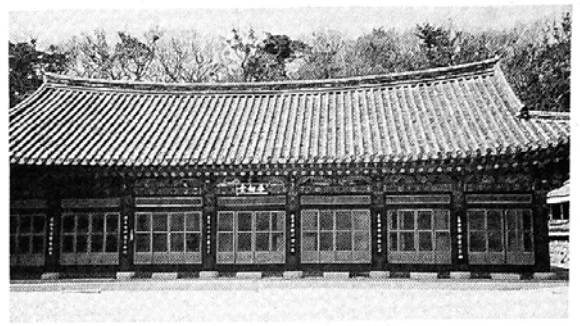
돈황의 가장 큰 특징은 벽과 천장에 줄줄이 늘어선 각양각색의 섬세한 색채와 옷으로 치장된 불타의 세밀 초상화들과 한 뼘의 공간도 없이 가득 메워져 있는 장식 문양, 설화·불상·천계의 인물들이 마치 하늘에 흩어진 꽃과 같이 우아한 유희와 음악으로 불국정토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또 석굴의 벽화와 소조는 당시 사원내부의 생활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위트필드 교수는 설명했다. 석굴에는 참선하는 모습의 승려상이나 고승의 초상조각이 있으며, 특히 초기 석굴에는 교각좌(交脚坐)의 미륵불이나 석가모니의 사유상(思惟像)이 많이 봉안돼 있음을 슬라이드를 통해 자세히 소개했다.

돈황에 대한 설명 후 위트필드 교수는 현재 미술사가들의 당면문제는 돈황석굴을 가능한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풍부한 자료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불교미술의 도상과 다양한 양식의 발전, 불교교리와 정치적 변화가 미술에 끼친 영향 등 더욱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런던대학의 중국과 미술사 교수인 로드릭 위트필드는 케임브리지 세인트 존스칼리지와 프린스턴대학에서 중국미술과 고고학을 전공했으며 1968년부터 1984년까지 대영박물관 동양미술부 부부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다수의 중국회화 전시와 돈황에 대해 저술했으며 현재 '돈황 강좌'를 위해 세계 여러곳을 순회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심검당 주련은 사물의 분별과 쓰임새에 얽매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동화사

심검당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良由取捨所以不如
(양유취사소이불여)
着意用工總是痴寒
(착의용공총시치한)
本來無物何論一體
(본래무물하론일체)
不愛福田不樂生天
(불애복전불락생천)

분별 집착 놓으니 참모습 보이네

도리어 버리고 취하는 마음 때문에 여여하지 못하도다
의를 갖고 용공함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로다
본래 무물인데 어째서 일체를 논하는가
복전을 좋아 말고 하늘나라에 태어나길 즐겨 마라.

해설 심검당이 선수행의 도량임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동화사 심검당의 주련도 선수행의 궁극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세번째 구절의 '본래무물'의 의미를 아는 것이 이 내용을 파악 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래무물이란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라는 6조 혜능의 게송에서 그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혜능이 5조 홍인의 문하에 들어가 방아찧는 행자로 지내다가 신수의 게송이 부족함을 알고 지은 게송으로 6조가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내용이다. 혜능의 게송은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무일물 하처야진애(菩提本無樹 明鏡亦非臺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 보리에 나무 없고 거울 또한 틀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 없거니 어느 곳에 티끌 일어나랴)'이다. 신수의 게송을 극적으로 뒤집은 이 게송은 전하는 바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아무튼 본래무일물이란 우주의 참 모습은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착할 그 무엇도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본래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항상된 모습을 가지지 않는 까닭에 결국은 존재의 공성(空性)임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이다.

따라서 이 내용이 파악된 이상 앞의 두 구절 즉, 버리고 취하는 마음이나 뜻을 세워 사물을 분별하는 것은 계속되는 집착의 과정일뿐 본래 한 물건도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 도리를 아는데는 장애가 된다는 의미도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사물을 분별해 따지고 이리저리 쓰임새에 얽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까닭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래 무일물의 도리를 알 생각은 않고 일체의 형상을 논하는 것을 경계하며 아울러 복을 구하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길 염원하는 것도 성불의 구경과는 거리가 먼 일임을 힐책하는 것이 이 주련의 내용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함양서 고려 음각석불 발견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음각석불이 함양군 함양읍에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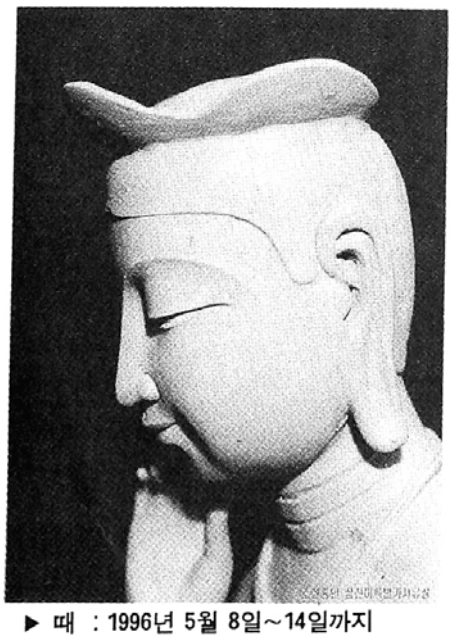
함양군청은 지난달 22일 이 불상에 대해 지난 3월말 부산시립박물관과 경상남도 문화재 조사단이 공동으로 탁본을 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음각석불은 길이 1백85m 너비 72m 크기로 양연좌와 삼도, 법의, 광배 등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얼굴형이 둥글고 법의를 입었음에도 두발을 벌려서 있는 특이한 형태이다.

"홍법국사 실상탑 환원을"
충주시민·사학자등 주장

충주시민 및 향토사학자들은 최근 일제시대 일본인들의 문화재 이관 정책으로 1915년 충주시 동량면에서 경복궁 경내로 옮겨진 정토사 홍법국사 실상탑(국보 제102호)과 실상탑비(보물 제359호)를 본래의 위치로 환원해야 한다며 이를 요청하고 나섰다.

삼천미륵반가사유상을 모시는 서원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앞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 가치가 물질적 수치로 계산되는 것이라고까지 믿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이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다.
온갖 소유욕으로 양심이 무너져버린 지식인들의 인간파괴 행위는 그들이 다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경제력이 있다하는 것만으로 그들 행위가 면책된다고 여기는 착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같은 면책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절망만 합니다. 물질적 풍요를 마치 인간 이상이 실현되는 최고의 경지인양 잘못 말해온 지난 시대의 고통스런 정치적 증거들과 뒤틀린 상식들이 마침내 자연환경의 파괴라는 엄청난 불행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물의 죽음은 대표적인 불행입니다.
물이 죽자 시대가 흔들리고, 인간성은 콘크리트 벽속에 갇혀지고, 영혼은 더 이상 육신을 믿지 못하는 혼돈의 날들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했듯이 우리에겐 새로운 희망이 필요하고 변화와 창조 그리고 영원에 대한 의지가 다시 솟구쳐나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희망은 참회를 통한 것이어야 하고, 그 변화는 전통적 삶의 진실을 끌어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창조 또한 자연과 인간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일찌기 미륵부처님은 고난 받는 사람과 시대를 극복해내는 의지로써 우리 곁에 있어 왔습니다. 또한 석가모니부처님 다음으로 인간세계와 인연 맺어진 후천불로도 믿어져 왔습니다. 이제 지치고 병든 20세기의 인류역사는 거대한 변화의 물살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깨끗한 희망의 세기입니다.
한층 더 청정하고 굳센 의지로 맑고 고요한 가정과 사회, 세계와 자연이 함께 할 영원의 기를을 다지는 귀한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을 초대합니다.
21세기는 삼천미륵부처님과 함께 하는 세기입니다.
삼천미륵부처님께로의 여행에 당신의 발걸음도 얹어 주십시요.
함께 갑시다.

삼천미륵부처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 두손모음

▶ 때 : 1996년 5월 8일~14일까지
▶ 곳 : 서울 조형 갤러리(T.02/736-4804)
▶ 전 조계종 종정 서암큰스님 서원법회 :
1996년 5월 8일 수요일 오후3시 조형갤러리 전시실

대 방 사
주 지 도 안

경남 사천시 대방동 44번지
T.(0593)33-5197

삼천미륵부처님 모시는 안내
국민은행 663-21-0064-815 예금주 : 곽병학

보르헤스의 ⑬ 불교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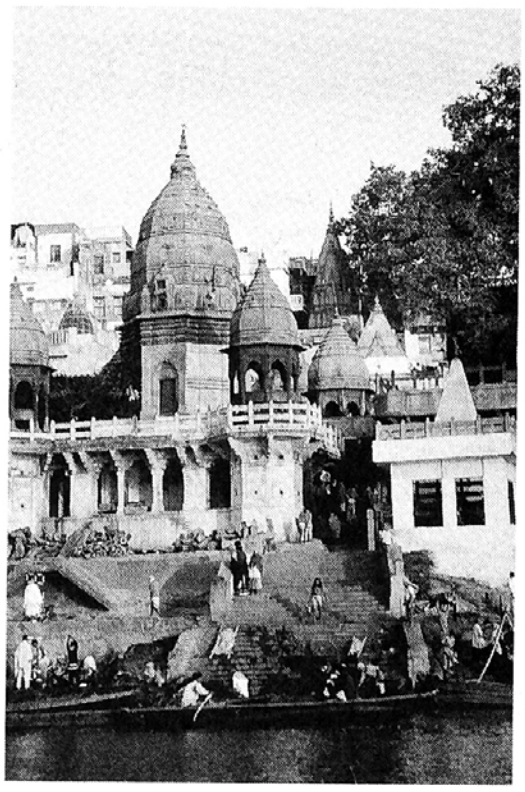
윤 회 ③

영혼불멸 부정…윤회주체 '業'

부처님 무아설 기초 '현생 바른생활' '安心' 가르쳐

無我－윤회관계 유식학등 불교교리 발달사 주제

인도에서는 윤회를 확고한 믿음으로 삼아 그 어떤 증명도 시도하지 않는다 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기독교 사회와 대조된다



◇윤회에 대한 믿음은 전생의 업에 대한 현생의 보를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게 했으며 내세의 몸과 환경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의 선업을 강조하게 됐다. 사진은 갠지스강변의 장례식 장면. 다비를 기다리는 시신이 보이고 좌측에서는 다비가 진행되고 있다.

크리스마스 험프리는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가 죄인에게 그 죄를 묻는 것이 아니다. 그 죄 자체가 그를 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용서란 있을 수 없고, 또 누구도 대신 벌 받을 수 없다"

업은 동사가 아니고 명사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주어가 되지 따로 그 행위와 주체를 필요치 않는다. 업의 본질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고통스럽거나 행복한 다른 행위로만 나타나는 것이다. 업은 우주의 법칙이지만 그 법을 제정한 입법자(立法者)나 그 법에 따라 심판할 재판관은 존재치 않는다. 업의 작용에는 인정사정이 없다. 담마파다 경전에 이런 말이 있다. "하늘에도, 바다 속에도, 깊은 골짜기에도 인간이 자신이 저지른 악행으로부터 벗어날 공간은 없다"

업에 대한 믿음은 불행에 대해 체념하고 참고 견디게 만든다. 과울 도이센은 인도 자이푸르에서 만난 어느 장님 거지에게 어쩌다 시력을 잃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장님은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하고 대답했다. 그저 받는 고통이나 그저 얻는 행복은 없다는 것이다. 인도인들은 자선을 허식이거나 공연한 짓으로 본다. 고통받는 사람은 그 고통으로 인해 오히려 전생의 죄를 보상받기 때문이다. 그 고통을 덜어 주려고 도와주는 것은 빚을 갚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디는 보호소나 병원 짓는 일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인도에서 윤회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끊이지 않는 기독교 사회와 분명히 대조된다. 한편 조용히 수도하는 것 외에 거의 모든 선업(善業)은 이웃을 도와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일 자선이 무의미하다면, 대체 어떤 것이 선업이 될 수 있을까.

업은 보편적인 법칙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 업보(業報)를 뜻하기도 한다. 사람은 현세(現世)에서 행하는 악행과 선행에 따라 내세(來世)의 몸과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불교신자는 윤회와 업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어쩌면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서구인들은 윤회에 대해선 대개 수긍하지만 대부분 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선 생소해 하고 고개를 갸우뚱 한다. 플라톤이나 피타고라스가 보는 윤회의 논리는 불멸하는 순수 영혼을 먼저 상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영혼이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옮겨 다닌다는 것이다. 반면에 불교는 자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생(轉生)과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업의 개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 개인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다는 복잡한 업의 논리에 바탕을 둔 윤회관은 한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바꾸어 간다는 단순한 윤회관보다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의 불교학자 나까무라 하지메(中村元)도, 교리와 현실(민간신앙)사이의 괴리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무아설과 윤회설 사이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불교는 무아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영혼과 같은 실체적 존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윤회는 무엇인가 실체적인 영혼같은 존재가 업을 짊어진 채 한 생(生), 또 한생, 그 거주처를 바꿔가는 것이다. 즉 윤회에는 마땅히 그 주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불교는 윤회설을 수용했는데, 그렇다면 무아설과 윤회의 주체와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석존에게는 이 문제가 별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지 않다. 석존은 어디까지나 현생에서의 바른 생활방식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안심(安心)을 가르친 사람이다. 한편, 석존은 무아(an-atman)설을 가르쳤지만 당시 힌두교 철학자들이 벌이고 있던 아트만(我) 논쟁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즉, 석존의 무아설은 형이상학적으로 아트만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여, 그 존재를 부정했다는 의미의 무아설이 아니었다.

정말로 아트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존속하고 또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할텐데 사실상 진정한 아트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무아설이 석존의 무아설이었다. 그것은 동시에 아집도 없애고 산다는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무아설이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불교는 윤회를 실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윤회의 주체와 무아설과는 특별히 모순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석존의 입멸 후 약 백여년이 지나 부파불교의 시대로 접어들면 무아설은 그대로 무영혼설로 통용되어 곧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변해간다. 그와함께 불교도 사이에서 물리적 의미로 수용된 윤회관은 마땅히 업을 짊어지고 윤회하는 주체를 묻게 되고, 따라서 그것과 무아설과의 관계도 역시 의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상 이것은 힌두교 계통의 철학자들과 벌인 토론에서 비판을 받은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고대 인도의 불교지도자들은 무아설과 윤회의 주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도 불교 교리발달사의 커다란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에 대한 연구는 결국에 가서 유식학파의 아뢰야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교리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가 표방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주하는 실체로서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인격적 주체로서의 업을 유지하고 있는 영혼은 3세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그것은 불생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윤회의 주체로서 업이나 경험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가면서 이어지는 유위법(有爲法)인 것이다. 유식(唯識), 법상(法相) 학설에서 말하는 아뢰야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에 지나지 않는다'

〈불타의 세계 PP·434~435〉"

편역 : 김 홍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김 태 곤 〈가수〉 〈下〉



'쌍골죽' 쓰임새 되새기며 투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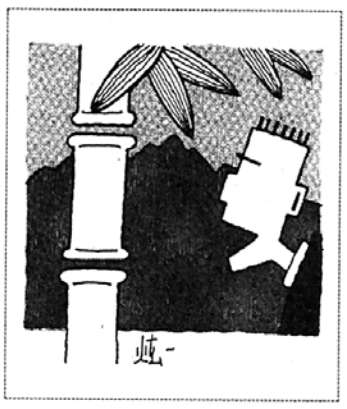
"내 노래 듣고 누구나 기쁨얻도록 노력해야지"

제주해협을 건너는 항해에서 나는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으며 불교에 더욱 일심으로 귀의 하게 됐다.

우리의 전통음악에 대한 탐구도 새로운 각도에서 하게 됐고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부를 수 있는 대중찬불가 만들기 작업도 힘을 얻었다. 그런 힘을 바탕으로 선(禪)과 범패의 음률을 조화시킨 '일출봉'이란 노래를 만들었다.

질은 어둠 등에 업고
산마루에 올라보니
떠오르는 붉은 태양
마음의 눈을 뜨고 보세
사바세계 백팔 번뇌
안개처럼 사라지니
한 모금의 샘물에도
님의 뜻이 담겨 있네.

기타를 치고 대금을 불고 굉과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하다보면 나는 늘 나 자신이 동해에 떠오르는 장쾌한 일출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것은 내가 노래에 몰입하며 마음으로 보는 세상일지도 모른다.



아침해가 떠오르는 순간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 가려는 나의 소망이 무의식의 경지에서 나를 동해로 이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나는 마음 먹었다. '동해로 가면 동해로 가고 서해로 가면 서해로 가리라'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건 나는 나의 자리에 꿋꿋이 서서 부처님의 한량없는 법문을 노래로 부르며 기쁜 나날을 만들어 갈 뿐이니 그 자리에서 '기쁘다'는 생각조차 잃어 버릴 날이 오지 않겠는가.

나는 요즘 새 음반을 만드느라 바쁘다. '일출봉'을 다시 편곡해 부르고 새로 만든 대중찬불가들을 음반에 담고 있다. 아직 내 몸의 병마를 완전히 물리치지 못한 고통이 내 삶과 함께한다. 그러나 몸이 편하면 도를 구하는데 게으르게 된다는 말이 있듯 병마를 내 삶의 활력으로 삼고자 노력한다.

좋은 대금(大琴)은 쌍골죽으로 만들어진다. 쌍골죽이란 병든 대나무다. 병이들어 잘 자라지 못하다 보니 살이 두꺼워지고 골도 양쪽으로 파여 있다. 그런데 그 쌍골죽이야말로 쨍쨍한 소리를 내고 잘 갈라지지도 않는 강하고 좋은 악기로 만들어 진다. 병든 대나무는 병으로 인해 스러지는 것이 아니라 명기로서의 조건을 묵묵히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영산회상곡'을 연주하며 나는 그 쌍골죽의 지혜를 배우고 영취산에서 무량의 법을 설하는 부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불자는 수행의 자리를 따로 가리지 않고 수행의 시간을 따로 갖지 않아야 한다고 들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수행도량이고 지금 이 시간이 수행시간이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나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니까 노래에 젖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라 믿고 있다. 한때 수화를 겸한 노래 '아이야 우지마라'를 불렀었는데 농아들이 무척 좋아 하는 모습을 보며 수행은 살아가는 매순간 그 자체이고 남의 마음을 기쁘게 해 줄 수 있는 일 보다 큰 수행도 없을 것이란 믿음을 갖게 됐었다. 나의 기쁨과 남의 기쁨을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노래 부르는 사람이 해내야할 일인 것이다.

노래로, 말로, 행동으로 나와 남을 함께 기쁘게하는 지혜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귀여운 첫딸 자비의 첫돌잔치를 두고 나와 아내는 여러가지 궁리를 했었다. 남들처럼 집이나 음식점에서 손님을 대접하며 첫돌을 보내야만 하는가를 고민했었다. 그럴즈음 조계종 총무원에서 캄보디아 난민돕기 성금을 모금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 아내는 무언의 의견일치를 보았다.

우리 예쁜 자비의 첫생일은 난민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기념하자고. 나중에 아이가 크면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 일을 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부부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나는 늘 생각한다. 내가 부르는 노래가 누구에게나 기쁨일 수 있을까를. 누구라도 듣고 기쁜 마음을 내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내 수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나를 보게 하소서!

현장스님의 염불선 이야기 ……



玄藏 스님은 1975년 송광사에서 九山禪師를 은사로 득도하여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보성 대원사에 수련도량을 개설 일반인과 재가불자를 위한 주말수련회를 지도하고 있다.

「염불공부는 바로 참자기(眞我)를 찾는 기장 순수한 참선 입니다.」
〈청화큰스님 머리말 중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많고많은 죄업중에 가장 큰 죄는 "내가 나를 모르는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방황하고 고통받는 모든원인 또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무명(無明)에서 생겨 난다고 합니다.

염불은 내가 나를 불러 내 자신으로 돌아가는 가장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수행법입니다.

염불은 내가 부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염불은 중생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중생을 염려하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저자 서문 중에서〉

◀현장스님 지음 ◀민족사 퍼냄 (02)732-2403 ◀값 5500원

태아령 (胎兒靈) 천도를 위한

백일기도 (죄업소멸 복덕증장) 봉행



태안지장 (胎安地藏) 보살

태안지장 (胎安地藏)보살을 봉안하고 낙태유산아의 천도를 기원해온 대원사에서는 셋을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고 불쌍한 어린 영혼들의 천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6차 백일기도를 봉행합니다.

지옥중생을 모두 구원하고자 서원한 지장 보살님과 자비의 빛으로 중생을 구원해 주시는 아미타 부처님의 큰 자비에 의지하여 삶의 고통과 장애에서 벗어나 공덕의 삶 누리길 기원 합니다.

◆일시 : 불기 2540년 5월 31일 (입재) ~ 8월 28일 (회향)
◆동참회비 : 기도비 (5만원), 영가위패 1인당 (5천원)
◆온라인 : 조흥은행 322-06-008780 (석현장)
◆연락처 : 우) 546-840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
전화 (0694) 52-1755, 53-1755
팩스 (0694) 53-0009

천봉산 대원사
주지 玄藏 합장

1박2일 출가생활

대원사 주말 수련회



염불선 수련도량 대원사에서는 재가불자들의 신행을 위해 주말을 이용한 1박 2일 수련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성을 밝혀 향기로운 삶을 이루기 위한 대원사 주말수련회에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일 시 : 매주 토요일 5시 ~ 일요일 2시
■수련내용 : 염불 명상법, 정토수행법, 자비관 선체조, 향공 (香功), 육근참회, 운력 등
■수련지도 : 현장스님 ■회비없음
■준 비 물 : "나를 보게 하소서" 사전숙독 (민족사발행)
■교 통 편 : 광주고속터미날에서 117번 217번 시내버스타고 (사평 종점 하차) 대원사까지 택시 (혹은 군내버스)
■연 락 처 : (0694) 52-1755 · 53-1755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57〉

諸賢頌句 (제현송구) ④

逃生脫死勤成佛 莫待明朝與後朝
도생탈사근성불 막대명조여후조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든 부지런히 부처이루라 내일 아침, 모레 아침을 기다리지 말지어다

慈受禪師訓童行
자수선사 훈동행

世諦紛紛沒了期 空門得人是便宜
세체분분몰요기 공간득입시편의

세간의 도리는 잡되고 어지러워 마칠 기약이 없다 공문에 드는 것이 마땅히 옳고 편하다

直須日夜常精進 莫只勞勞空過時
직수일야상정진 막지로로공과시
燒香禮拜莫忽忽
소향예배막홀홀

모름지기 밤낮으로 늘 정진하고 다만 억지로 시간을 허송하지 말라 향 사르고 예불하기를 소홀히 말라

目覩心存對聖容
목도심존대성용
懺悔多生塵垢罪 願承法水洗心胸

승 섬기기를 집에있는 어버이 섬기듯하라

添香換水須勤愼 自有蒼天鑑照人
첨향환수수근신 자유창천감조인
廊下逢僧須問訊
랑하봉승수문신

향 꺼트리지 않고 다기물 갈며 모름지기 부지런하고 삼가하라 네 마음 가운데 천·룡이 있어 너를 거울처럼 비추나니라
낭하에서 스님을 만나면 모름지기 캐어묻고

門前過客要相呼
문전과객요상호
出家體態宜謙讓 莫學愚人禮數無
출가체태의겸양 막학우인예삭무

문앞에 과객있거든 서로 호응해 보라
출가한 이의 몸가짐은 마땅히 겸양이어야 하니 어리석은 이 자주 예법이 어긋나는 것을 닮지 말라

出家不斷葷和酒 枉在伽藍地上行
출가부단훈화주 왕재가람지상행
到老心田如未淨
도노심전여미정

"생사 벗어나려면 부지런히 정진하고 여러생 티끌처럼 쌓인 죄업 참회하라"

참회다생진구좌 원승법수세심흉

눈으로 보되 마음에 두어 부처의 모습을 대하라
여러 생동안 티끌처럼 쌓인 죄업을 참회하고 원컨대 법수를 받아 마음을 씻을지어다

也要學書也念經 出家心地要分明
야요학서야념경 출가심지요분명
他年圓頂方袍日
타년원정방포일

또 종요로이 글을 배우고 경을 마음에 새겨서 출가한 마음자리를 분명케 하라
어느해에 머리깎고 가사장삼 걸치는 날에

事事隨時總現成
사사임시총현성
一等出家爲弟子 事師如事在堂親
일등출가위제자 사사여사재당친

일마다 때를 맞춰 모두 이뤄지리라
일등으로 출가하여 제자가 될진대 스승 섬기기를 부모 섬기듯 하라

출가하여 마늘·파등 냄새나는 채소와 술을 끊지 않으면 절땅을 밟고 다님에 그릇됨이 있다
늙도록 마음밭이 깨끗치 아니하면

菩提種子亦難生
보리종자역난생
莫說他人短與長 說來說去自招殃
막설타인단여장 설래설거자초앙

보리 종자가 또한 나기 어려우니라.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라 말이 오고 가매 스스로 재앙을 부른다

若能閉口深藏舌 便是安身第一方
약능폐구심장설 변시안신제일방
色身健康莫貪眠
색신건강막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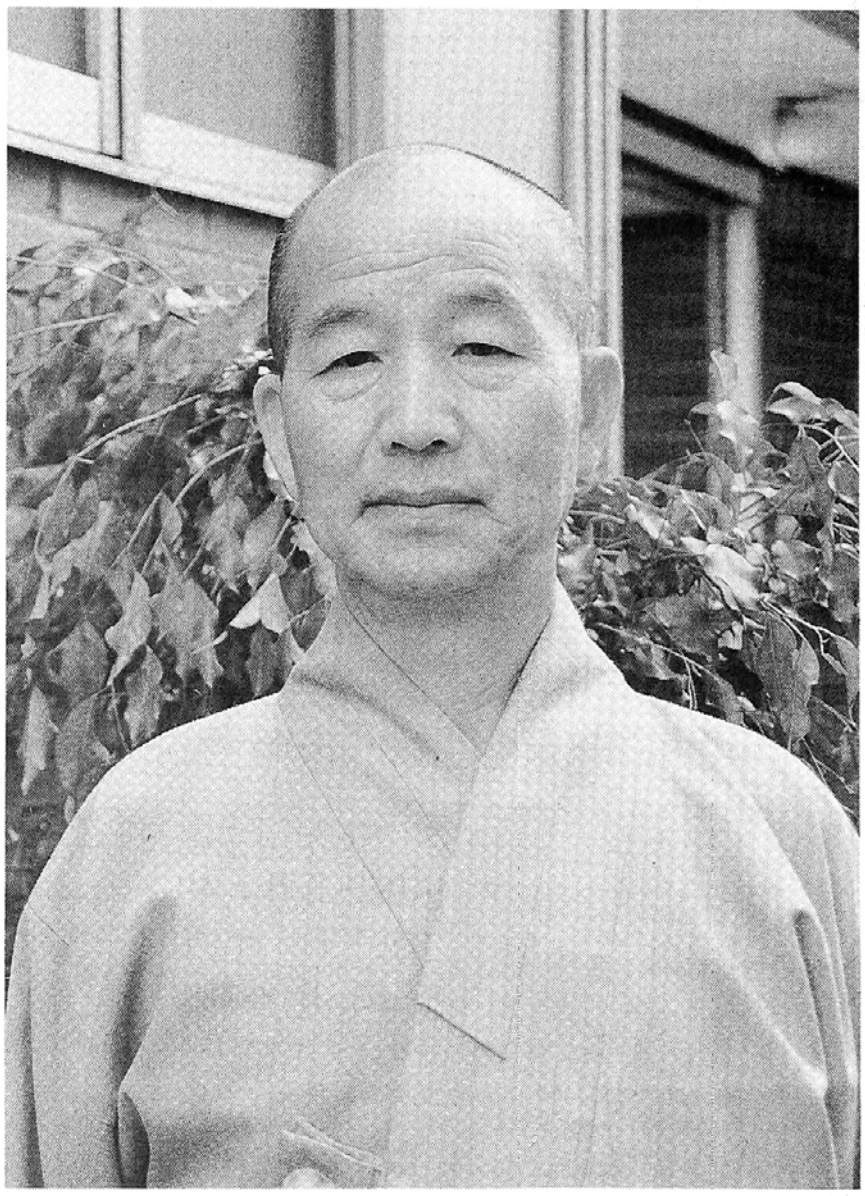
만약 능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곧 이것이 몸을 편케하는 제일 방편이니라
색신이 건강할때 잠자기를 탐하지 말라

龍眼

가정의 달 지상법석

"은혜는 갚아야 할 빚

정무스님 〈보적사 주지〉



약력
- 31년 전북 옥구 生
- 전북대 졸업
- 58년 전강스님 은사로 봉은사서 득도
- 직지사 강원 졸업
- 72년 용주사 주지 역임
- 87년 신륵사 주지 역임.

푸른 5월, 이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 날이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어린이 날과 부처님 오신 날도 이 달에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5월을 맞아 오늘은 사람이 사는 도리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보은(報恩)의 도리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 그것은 은혜를 갚는 과정이고 은혜를 입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생의 윤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세에 이미 수많은 은혜를 입었고 금생에서도 알게 모르게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과거에 입은 것이건 지금에 입는 것이건 은혜는 빨리 갚아야할 빚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은혜를 다 갚아버리면 우리는 이미 할 일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할일을 다한 자리에서 우리는 보살이되고 성불의 바탕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은혜는 크게 네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삼보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 국가의 은혜, 동포의 은혜입니다. 삼보의 은혜는 불법승 삼보와 스승의 은혜를 두루 포함하는 것이고 부모의 은혜는 지금 이 몸을 낳아주신 부모 뿐아니라

"요즘 교육이 보은을 가르치기보다 자유와 권리 신장에만 치우치다 보니 사회문제 심각해집니다"

과거 수겁 동안의 부모에게 입은 은혜이며 국가의 은혜는 나라가 있음으로 내가 입는 모든 혜택에 대한 것이고 동포의 은혜는 내 삶의 도반들인 이웃과 사회 구성원 모두에 대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재한 것은 다 이 네가지의 은혜가 있어서 입니다. 이 은혜가 자신의 삶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알게하고 그것을 갚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으뜸가는 교육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육은 은혜를 알고 갚게 하기 보다는 자유와 권리의 신장에 너무 치우쳐 있어 많은 사회 문제를 불러 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기가 천지만물을 위해 나왔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서양식 교육은 천지만물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이기심만 길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불법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한몸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과 은혜가 있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그 은혜를 갚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야 참된 교육이고 좋은 세상 가꾸는 일일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가운데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부모님 은혜 갚는 일입니다. 온 중생이 다 내 부모이고 형제입니다. 과거세를 인정하고 윤회의 이치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중생도 언젠가는 내 부모였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문에 효를 강조하는 불교의 입장이 일반 윤리나 유교와 다른 것입니다. 이 생에서만 효행하라고 가르치기 보다는 과거세의 부모(일체중생)와 이생과 내생의 부모에게까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부모님 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이를 설명한것이 바로 〈부모은중경〉입니다. 이 경전은 매우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부모은중경〉은 다생부모 십종대은을 열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뱃속에서 지켜 주신 은혜인데 잉태의 순간 이전의 여러생에 걸친 인연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뱃속의 아기를 위해 어머니가 얼마나 몸을 조심합니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소리를 들으려 하고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아이를 위해 태교하니 그 은혜를 누가 작다 하겠습니까. 다음은 나으실때 고통 받으신 은혜입니다. 아기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나보다 여러 어머니들이 더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요즘 생일풍속이 아주 잘못돼 있어요. 생일날은 져가 태어난 날이기 앞서 어머니가 고생하신 날 아닙니까. 그런데 저 홀로 태어난 것인양 생일날 제가 미역국 먹고 제 친구들과 파티하고 즐기며 오히려 어머니 음식하는 수고를 더 해주고 있으니 잘못됐다는 겁니다. '생일 축하 합니다'란 노래도 바꿔야 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고에 감사합니다'라고요. 생일날이 되면 제가 좋아하기에 앞서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계시면 큰 절을 올리며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세번째 은혜는 낳고서야 근심을 잊어 버리시는 것이고 다음은 쓴 것은 삼키시고 단 것은 뱉어 먹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기본 욕구중의 하나가 먹는 것인데 어머니는 그것마저 마다하고 맛난 것 자식에게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추가모집

1989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0명 •야간 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모집 완료 •통신 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0명 •야간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0명 •통신 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2급 119명 자격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제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4월 26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화불교대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중국 명문 한의대 박사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연수대학 : 남경중의약대학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침, 기공에 관심 있으신 분
■기 간 :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 중풍, 당뇨병, 좌골신경통, 침치료, 기공 등
■연 수 후 : 박사과정 연수수료증 수여
■인 원 : 15명 이내
■출 발 일 : 1996년 6월 4일 (화요일)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 남경 660-7129
■문 의 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 511-2026~8

법화경무료특강

한국승가 대학원에서는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산에서 아래와 같이 〈법화경 무료특강〉을 실시 하오니 법화경에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5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정각
■ 장 소 : 부산지하철 교대역앞 〈국제신문 4층 강당〉
■ 법 사 : 최공덕스님 (법화경교단법주)
■ 동 참 : 불교의 진실을 알고 싶은 모든분
■ 문 의 : ☎ (051) 645-6224

※ 전화로 동참을 예약하시는 선착순 200명에는 법화경(싯가 3만원)과 도덕교재, 황수련시집등을 선물로 드립니다.

한국승가대학원
부산강의실
책임교수 오종법사 최공덕

가정의 달 지상법석

보은하는 삶을 삽시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업장지으면 어떤 선업을 지어도 소용없습니다"

먹이고자 입의 것도 뱉어 주시니 이 얼마나 고다운 일입니까. 마른자리는 자식 뉘이고 진자리에 누우시는 은혜가 다섯번째고 젖 먹여 길러 주신 은혜가 여섯번째 입니다. 더러움을 씻어주는 고마움이 일곱번째고 자식이 멀리가면 걱정하시고 무사히 돌아 온 것을 봐야 안심하시는 은혜가 그 다음인데 우리는 밖에나가 제 할일 바쁜 줄만 알고 집에서 걱정하시는 부모님 생각은 할 줄을 모릅니다. 그것도 불효임을 아셔야 합니다.

아홉번째 은혜는 자식을 위해서는 나쁜 업도 지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악업을 지어 지옥갈 것을 좋아 하겠습니까.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나쁜 일도 하고 지옥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곳도 간다는 겁니다. 그러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부모님 은혜만 얘기 했지만 앞에서 말한 네가지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온당한 삶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온당한 사람은 바로 보살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그는 이 시대의 보살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많아 질 수록 우리 사회는 밝고 건강해져서 불국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온당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과정에 강조되는 것이 은혜를 알고 갚는 것이고 그 가운데 부모님 은혜 잘 갚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 하는 것은 어쩌면 종교적 교설을 뛰어 넘는 것일 겁니다. 제때에 조금씩 거르지 말고 챙겨 드려야 합니다. 한꺼번에 맛난 것 많이 드려서 병을 얻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꾸준히 음식을 마련해 드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니 이걸 잘 하면 공경심도 장하다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 며느리가 효부상을 받았는데 그 비결은 다름아니고 매일밤 시어머니 잠자리에 숭늉 한 그릇을 놓아드리는 것이었고 그 며느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년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동네 아낙들이 너도나도 효도 한다고 시부모 자리끼 챙기는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막론하고 석달을 못넘겼다지 뭡니까. 그래서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하는데는 지극한 정성이 없으면 안된다는 교훈을 얻고는 그 며느리의 효부끝까지 공손 해야 합니다. 불인하다는 것은 대개 망령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인데 부모의 망령도 자식의 죄에서 비롯됐음을 뼈저리게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 앞에서 끝까지 좋은 낯 빛을 잃지 말아야 하고 무슨 요구든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세상 인연이 다하여 부모가 돌아가시면 천도를 잘 해야 겠지요. 그런데 사후의 천도재 보다 더 좋은 것은 생전의 예수(豫修)입니다. 예수재를 잘 지내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생전에 불법과 많은 인연을 맺도록 해 드리란 말입니다. 절에도 자주 가시게끔 하시고 염불도 많이 하고 큰 스님 법문도 많이 듣게 하시고 글을 아시면 불교책도 사다 드려서 생전에 불법인연과 공덕을 많이 지으면 사후의 천도재 보다 훨씬 값진 효도가 됩니다. 해마다 기일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데도 경건하고 공손한 마음이 우선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차린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불자 가정에서는 기일제사도 육법공양에 맞춰 차리면 흡족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보살행의 상징인 꽃과 지혜와 광명의 상징인 촛불, 번뇌를 씻고 열반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청정수, 해탈을 상징하는

'孝'는 보살행의 근본…수행 과정으로 삼아야

윤회알면 모든중생 내부모 "처처에 공양하자"

니 저 한몸 잘 살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아 부모로 하여금 악업 짓지 않게 하는 것도 큰 효도 입니다. 마지막은 끝없는 자식 사랑으로 애태우시는 은혜인데 용주사본 부모은중경판의 그림을 보면 백살된 어머니가 여든살 된 자식 걱정에 차마 눈을 감지 못한다는 장면이 묘사돼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자식일 뿐이며 그 내리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은 중학생만 되어도 부모를 따르지 않고 제 뜻대로만 하려 한다더군요. 하물며 더 자라서 부모의 뜻을 어기는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를 먼 곳에 갖다 버린다는 패륜마저 저지른다니 한심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다 은혜갚는 도리를 가르치지 않는 탓입니다.

〈부모은중경〉은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교육시키는 훌륭한 교과서입니다. 부모도 자식이고 자식도 부모가 되기 때문이죠. 은혜의 종류가 무엇무엇이라는 것을 구분해 잘 아는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그렇게 나누어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 뿐이고,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 인해 가능하며 그걸 갚는 것이 바로 보살행임을 알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그러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효의 당위성이란 보살행의 근본으로 강조되고 있는만큼 수행의 한 과정으로 효의 실천을 삼아도 무방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업장을 지으면 그 어떤 선업을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란 말이 있지만 효는 실로 백가지 선업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온당한 삶을 지어가면 효와 보살행이 저절로 이뤄진다는 것을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신체와 정신을 건강히 지니고 보은의 삶을 가꿔 나갈때 우리 사회는 5월의 저 무성한 대지처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지켜야할 효행의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모님은 집에서 제일 큰 방에 모셔야 합니다. 공경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과 의복을 갖춰 드려도 불효입니다. 큰 방에 부모님을 모시면 부모님이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아이들이 조부모를 공경하고 친해질 수 있으니 좋고 큰방의 공기가 작은 방 보다는 좋을 것이니 노인병도 덜 걸리게 될 것 아닙니까. 뒷방에 모시고 효도한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봉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식사는

상이 참으로 값진 것임을 인정 했다 합니다.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데도 방법이 있으니 들어 보십시요. 용돈은 무주상 보시로 드려야 합니다. 법당에 시주금 놓고 주지스님에게 그 돈을 어디다 쓸것인지 따져 묻지 않듯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그 쓰임새를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부모님을 제일 큰 방에 모시고
> 식사 제때 챙겨드리고
> 용돈드리며 쓰임새 묻지말고
> 언제나 공손하게 모셔야"

비록 그 용돈을 거지에게 다 주어버려도 그것은 부모님이 복을 짓고 보살행을 한 것이니 기뻐해야 합니다. 용돈은 반드시 깨끗한 봉투에 담아드리되 이왕이면 아들이나 딸에게 공손히 갖다 드리게 하십시오. 왜 냐고요. 그래야 여러분도 그 자식들에게 받을 것 아닙니까. 농담이 아니고 이런 교육을 몸으로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또 부모님이 병을 걷으면 가능한 한 친히 간병하셔야 합니다. 곧 회복 되실것이란 희망의 말과 행동으로 친히 간병을 하면 부모의 마음은 이미 병을 이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불인(不仁)하더라도

향, 보살행의 열매를 뜻하는 과일, 불법의 고귀한 맛을 상징하는 쌀등의 여섯가지 공양물이면 더 이상의 제수가 필요 없는 겁니다.

모든 공양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은 다른데 두고 눈에 보이는 것만 풍성히 한다고 공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게된데 대한 은혜를 갚아야 할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보은의 마음을 잃지 말고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갚으며 사는 지혜를 가집시다. 보살도를 행한다는 불자의 서원은 바로 은혜갚는 일에서 시작되고 또 거기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⑥⑧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⑤

물리적 실체는 오관이 창조해 낸 존재

'진공상태 복잡한 구조' 물리학자 밝혀

물리학자들이 자연현상에서 이중성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분별지로 반야심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오직 반야지를 터득한 사람들만이 직관으로 그 무엇을 꿰뚫어 보고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空)을 이해하고 불조(佛祖)의 가르침을 받들고 따를 뿐 대부분의 불교도들에게 부처님은 단순한 경배의 대상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분별지에 관한한 세계 제일의 지혜자로 칭송받던 사리불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리불에게 관자재보살은 오온개공을 풀어서 차근차근 "색불이공…"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풀어서 설하기 전에 반야심경은 먼저 오온개공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空)을 볼 수 있는 반야의 경지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현대물리학은 나름대로의 관찰을 통해서 경전이 말한 내용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와있다. 이해의 첫걸음이 바로 입자-파동의 이중성에 대한

오온개공

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대물리학 물리학적 해석이다.

오관으로 사물을 볼 때 존재하는 것은 물질뿐이다. 그런데 이 물질들이 거기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창조해서 보기 때문이라고 현대 물리학은 설명한다. 창조라는 말대신 그 무엇을 현재 사람이 보고 있는대로 변형시켜서 본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창조라는 말이 더 적합한 말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오관으로 파악하기 전에는 무엇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리학자들이 원자의 구조를 설명할 때 원자는 대부분 텅텅비어 있고 작은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 전자가 어떤 일정한궤도를 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전자가 구름처럼 원자핵 주의에 퍼져 있다고도 설명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퍼져 있는 것도 아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측정해서 봄 때까지 실체라고 부를만한 것이 없다. 오직 갖가지 가능성만이 있는 것이다. 측정하면 어디에선가 전자를 볼 수 있지만 측정하기 전에도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어딘가에 있을 것아니냐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틀린 생각이다. 존재할 확율만 있고 어디에도 있지 않은데 사람이 어딘가에서 전자를 창조해서 본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다.

존재할 확율만 있는 가운데서 형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니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공(空)이라는 말이 존재의 본질 또는 실상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말인데, 갖가지 형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공이라 불렀기에 이것은 그냥 비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진실이 아니다. 실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갖가지를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 공(空)이다. 이러한 공은 물리적 방법으로는 찾아낼 수도 없고 묘사할 수도 없다. 오직 가능한 여러가지 상태의 합(合)으로만 그려낼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보는 것만을 물리학에서는 물리적 실체라고 부르는데 이 물리적 실체는 실상 우리가 창조해낸 것이고 그 너머에서 무엇인가 진실을 찾으려고 해봐야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대물리학이 밝힌 것만으로도 진리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말이 있다면 오온개공 밖에 없을 것이다.

〈이화여대 교수 · 물리학과〉

불기 2540년(丙子年)

부처님오신날 축하 광고 안내

귀의 삼보하옵니다.
본지는 불기 2540(병자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법음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오신날 특집 신문을 꾸미고자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함께 하는 광고지면을 마련하였사오니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오신날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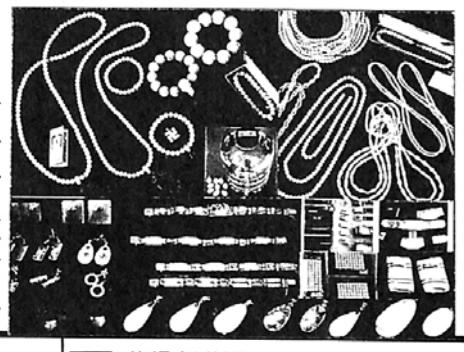
● 다음

■ 내용 : 부처오신날봉축광고
■ 규격 및 단가
1) 종단 : 가로 9cm 세로17cm 기준, 25만원
2) 본사 : 가로 8.5cm 세로 6cm 기준, 15만원
3) 말사 : 가로 7cm 세로 4cm 기준, 7만원
4) 불교관련업체 : 위규격기준, 선택
■ 접수마감 : 96년 5월 10일
■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8881/ 팩스 (02)737-0697

그 마음을 바쳐라/신국판 267쪽/값7,500원
김재웅 법사의 세 번째 책 출간!
그 마음을 바쳐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네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마음 아닌가.
〈백 선생님 법문에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법사의 첫 번째 책 신국판 291쪽/값3,800원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진 영원의 행로를 한걸음 한걸음 디디는 모든 길 가는 이들의 고통과 그 해탈을 위하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김재웅 법사의 두번째 책 신국판 273쪽/값4,000원

도서출판 불회/ 경북 영일군 흥해읍 성곡 2동 1269/ 전화 (0562)61-2231/ 서울 연락처 (02)742-0172
판매보급처/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720-3072,3073/ 팩스 (02)723-0646
공급처 목동회/ 서울 백화점상 (02)742-0172/ 포항 우현동 법당 (0562)47-0223 /포항 산업 법사 (0562)61-2231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치유하고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률을 증대하며 선(禪)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한국일보 외국신문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 상식의 테두리에 사로잡혀 있는 관념관 과학자의 관념능력을 넘어선 현상, 신비의 힘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춘천 옥산가 백옥입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폴민증 90.9%, 심장질환자 87.9%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부종, 폴민증, 복막,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춘천연옥제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몸떠지 84%, 오목 감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 2. 17)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吳是宝 合掌
玉山家® 777-0105

고은 불교대하소설

한 소식의 무리들

양관으로 보낸 사람이 돌아왔다. 그는 혼자 돌아오지 않았다. 그곳의 벙어리 다섯사람과 낙타 일곱마리도 이끌고 왔다.

벙어리만 골라온 까닭이야 이곳에 왔다 떠나더라도 이곳의 사정을 알릴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낙타에는 옷과 침구 그리고 무쇠가마솥까지 실어왔다. 그는 도중에 목재를 실어가는 대상(隊商)을 만나



75

부처님께서도 여러 경전을 통해서 무릇 이름이 다 헛된 것을 말씀하셨소. …그대가 이름을 가지는 것은 다만 방편일 따름이니 장차 그대의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오."

"!"

"나 또한 도리라는 이름은 뜨거운 햇빛을 가리는 손바닥일 따름이니 해가 진 뒤에는 작은 그늘을 만들 나위도 못되지요."

"!"

아무튼 금강이 돌아온 뒤로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양관이나 누란쪽에 나아가 필요한 세간살이나 연장 따위를 구해왔다. 아니 은밀한 신도들도 하나둘 동반해 올 수 있었다.

막고굴은 아득한 옛날의 동진(東晋)시대 이래 위·주·수·당·송·서하·원·명 그리고 청나라 초기에 이르기까지 10대 왕조 이상의 기나긴 세월에 걸쳐 조성된 천불동(千佛洞)인 것이다.

바로 이런 곳이 오랜 폐허로 방치된 것은 오아시스의 고갈과 함께 몇번의 전란 때문이었던가. 그 중에도 회교도가 이곳까지 침입했던 것이 치명적이었다.

그 뒤로 뜻있는 사람들이 이 폐허를 단속적으로 돌보는 일을 하다가 청나라 초기 이래로 그런 사람들도 영영 맥을 잇지 못한 것이었다.

여기에 도리 일행이 다시 막고굴의 폐허를 감당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본디 전 두령은 도리로부터 이곳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숨겨둔 야욕이 기름을 얻은 불길처럼 타올랐던 것이다.

도리로서는 두령에게 종교적인 귀의를 목적으로 막고굴의 장엄한 비밀을 말했던 것인데 두령은 그런 귀의 따위보다 장차 막고굴을 도읍으로 삼아 한 나라의 은(銀)을 주고 목재도 끌고 오게 하였다.

본디 죽은 전 두령의 심복이었던 것을 도리가 맡아 그의 충직한 제자로 삼은 것이었다. 성도 이름도 없는 옛 구자국(龜玆國) 종족의 젊은이인데 보통사람 서넛을 당할 수 있는 장사이기도 하였다.

도리는 그에게 법명(法名) '금강(金剛)'을 주었다. 이를테면 금강역사(金剛力士)를 뜻하는 이름이었다.

금강역사란 고대인도의 신화에 등장하는 역사인데 코끼리 60만마리의 힘을 가진 역사이며 어떤 거짓도 허용할 수 없게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졌다. 그래서 그런 눈을 금강안(金剛眼)이라 한다.

"금강!"

이라고 부르자 그때에야 처음으로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금강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것이었다.

도리어 스승 도리가 그런 금강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옛날 공자는 이름을 내세웠고 노자는 이름을 물리쳤지요. 우리 스승 석가모니 창건주가 되려는 생각에 닿아오른 것이었다.

그러다가 그 두령은 끝내 불운으로 세상을 하직하였고 도리가 그대신 이곳의 도량을 개척하게 된 것이다.

도리는 남대굴에서 금강과 그밖의 제자들을 데리고 시간을 정하여 명상과 앞으로의 막고굴 대중을 이끌어갈 구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또한 그는 만화 불이 합두들의 북대실 이외의 각 굴원을 순시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격려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았다.

"이곳에는 2천5백좌의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곳이야말로 2천5백여 대중이 한 사람이 한 부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장차는 이곳이 다시 한번 크게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때를 위한 겨자씨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매우 음악적이어서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선율을 불러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합두는 그런 도리를 "진리는 노래와 함께 옵니다"라는 멋진 말로 찬미하였다. 이미 전생의 합두가 처녀시절 불우한 그녀 자신의 처지를 바닷가 술밭에서 슬픈 노래로 자위한 바 있고 임춘의 후신인 불이와의 각별한 관계도 그런 시와 음악의 인연을 깊게한 바 있었다.

그런 사람인지라 도리의 그 음악적인 여운이 담긴 한 마디 한 마디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로 천년에 걸쳐 그려진 막고굴 각굴의 벽화에서도 그 벽화를 정성껏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벽화의 여러 변상(變相)에서 내는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것은 천년내내 들리는 소리 공양임에 틀림없으리라.

> "옛 부처를 만나 새 부처를 이룩해야 한다"
> 불이는 '왕오천축국전'의 감동을 음미하며
> 혜초의 외침을 다시 들었다

이런 굴안에서는 아무리 무서운 모래바람이 폭풍으로 불어닥쳐도 괴괴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곳이라면 만화 불이 합두의 북대굴도 그렇거니와 도리의 남대굴의 그 경건하기 짝이 없는 수행의 실내는 오로지 정신만으로 꽉찬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불이가 도리와의 우애를 꽃피우는 대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는 침묵이 함께하고 있었다.

"회주(도리는 어느새 이곳에서 회주(會主)라고 부른다)께서는 비상비비상천(非想非非想天)에 오르고 계십니다."

이 말은 중생으로서는 가장 높은 경지의 천상계에 도리의 공부가 닿아있다는 칭송이다. 비상비비상천이야 너무나 정신 자체 뿐이어서 차라리 어떤 공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최상(最上)의 하늘이다.

어떤 물질의 티끌도 따라붙지 않은 그런 허공으로서의 정신이 그것이다.

사실인즉 이런 불이의 칭송은 칭송만이 아니라 도리의 모습은 막고굴의 모든 굴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밝았다.

어떤 경우 도리는 오는지 가는지 모르게 오고 가기도 한다. 그래서 도리를 유령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형체도 그림자도 없다면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나 유령이기 십상입니다."라는 말을 하는 제17굴 장경동(藏經洞)의 사람 야사(夜舍)가 함부로 내뱉은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불이는 도리에 이어 이곳에서 그 지도력을 은근히 발휘하고 있었다. 그 지도력이란 다름 아닌 정진의 서열이기도 하였다.

이제 만화조차도 불이에게 그 자신을 낮추기를 미다하지 않았다.

장경동의 야사도 불이를 마음의 스승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야사는 그와함께 살고 있는 두 사람과는 달리 몇개의 커다란 실내에 오랫동안 소장되어 있는 경전들을 이따금 살펴보았다.

다른 두사람이야 글자와는 인연이 없는 문맹자이므로 그들의 선 수행에는 어떤 문자가 끼어들 여지 없이 순수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문자를 벗어난 직관에 길들여진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말과 문자 이외에도 5관(五官)에 의한 수많은 명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야사만이 그 장경동을 지키는 사람답게 문자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 거기에는 한자 경전 뿐 아니라 범어나 팔리어 그밖의 서역 문자 등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한문으로 된 작은 필사본 한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겉장에는 아주 얌전한 글씨로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이라고 씌여있었다.

야사는 그것을 불이가 들렀을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보여주었다.

"으음."

"…"

"어떤 사람이 천축을 다녀온 것을 기록한 것이로군."

그는 이것을 지은 사람이 신라국 혜초(慧超)임을 읽으면서 알 수 있었다. 그 안에 사연이 밝혀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것을 바깥의 환한 빛을 쏘여 자세히 읽기 시작하였다.

"으음."

그에게서 연방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혜초는 10대의 소년승으로 신라에서 당나라로 건너왔다. 답답한 세상에서 가슴이 활짝 열리는 세상으로 간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당나라로도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날마다 "더 멀리 가야한다!"라고 외쳐댔다. "부처님은 바로 나 자신이기도 하지만 나로부터 몇만리 먼 곳에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존재인지 모른다. 나는 그곳으로 가야한다. 룸비니 동산도 사위국도 왕사성도… 그 이름뿐인 먼곳으로 가서 나는 옛 부처를 만나 새 부처를 이룩해야 한다"라고도 외쳤다.

그런 나머지 당나라 사람들이 그를 미친 녀석이라고 조롱하는 것을 뒷치고 서역에의 고행에 나섰다.

불이는 혜초의 그 무서운 감동을 자아내는 기록의 책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하였다.

"나에게 보여준 일도 잊어버리기 바라오. 길이 보관해 두오."

그는 굴 밖의 3층 노대를 내려와 절벽의 굴 아래에 있는 드넓은 땅으로 내려왔다. 모래와 진흙으로 다져진 곳이었다. 더러 풀 포기도 돋아나 있었다.

"여기에 온 것은 축복이다!"

그는 오후의 명상을 그만 두고 내내 여기저기를 떠돌며 왕오천축국전이 준 감동을 음미하고 있었다. 해가 잔 뒤에도 오래동안 어둡지 않았다. 누구나 오후불식(午後不食)이므로 밥을 먹을 시간이 그에게만 필요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가능한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의 기쁨을 한껏 누리고 있었다. 그 기쁨이란 진리를 만난 기쁨이 아닐 수 없었다. 정수리가 펑 뚫리는 것처럼 텅빈 기쁨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제까지 누리지 못한 이같은 색다른 기쁨 속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공부를 통해서 한 소식을 얻는 상태였던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만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 막고굴의 다른 사람들도 마음속에 흡연히 출렁거리는 것 같은 기이한 체험에 에워싸이고 있었던 것이다.

도리 회주도 굴 아래의 땅으로 내려왔다. 그가 큰 소리로 노래하였다. 그 노래가 절벽에 닿아 메아리로 여기저기에 부딪쳐 갔다.

백억 터럭 끝에 사자가 나타나
백억 터럭 끝에 사자가 외친다
(百億毛頭 獅子現
百億毛頭 獅子吼)

이 노래 뒤에 도리는 미친듯이 자꾸 웃음소리를 냈다. 누군가가 말려도 말려지지 않는 웃음소리이겠지만 누구 하나 그 웃음소리를 말리지 않았다.



그림 · 조향숙

막고굴 일행은 '정수리가 펑 뚫리는 듯한 텅빈 기쁨'을 체험했다

분양
안전한 투자
(국가공인기관관리)
▼
동대문최요지전문상가
8500萬투자
1년후 2~3억원
- 은행대출3천만원 -
본사보장 첫입대시
(83平月90萬세입보장)
(02)264-2512
담당 과장 최경란

척추교정 · 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척추및 각 관절 교정법
: 목 · 허리디스크 신경통
: 관절염 · 중풍예방시술법
: 비만 관리 시술법
: 중앙오행 건강 지압법
: 시술도 병행함
장삼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 일체 불교악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64호
전화 : 778-5345
팩스 : 777-1917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일자리를 찾습니다.
■ 기능 : 운전면허 1종 보통 경력 7년
■ 승용, 승합기사, 기타잡무 가능
■ 나이 : 39세
■ 전화 : (02)994-2656
(02)3492-2652

탈종공고
한국불교 태고종 법하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태장1동 106번지
■ 사찰명 : 대원사
■ 주 지 : 속명 : 김세명
법명 : 영우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함
주지 김 세 명 합장

조립식 건물(주택)
저희 신화개발은 불자가 경영하는 조립식 건물 전문 시공업체로서 성실과 봉사로, 불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조립식 건물(주택)
경량 칸막이 시공
칼라 · 아스팔트 · 슁글
전화 (053) 742 - 7855
051 - 717 - 7792
011 - 532 - 8454
(주) 신 화 개 발

宗祠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 · 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36-11 상원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팩스:(02)266-2679

포교당 운영하실 분
수원 도심속에 포교원을 운영하고 있사오나 포교차 좋은 기회가 있어 외국에 나가게 되니 급히 포교원 운영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45평 : 5년간 운영
(비용은 상담후 결정)
전화 (0331) 41-4315

포교당 운영하실 분
주석하시던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자를 찾습니다.
■ 위치:동대문구 장안4동
■ 법당:50평,시설 일체 완비
■ 연락처:(02) 245-0904
■ 비용:보증금 3000만원, 시설 일체 2000만원
• 운영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대적광전 · 법당 · 명부
• 의왕시(대원사):대웅전 수미단 일체 문짝 문화
• 서울(백련사):법당 수미단 용상 목탁함
• 충남(정보사):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대웅전 명부전 문짝
• 성남(법륜사):대웅전 문짝 일체
• 충주(심원사):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서산(도전사):대웅전 수미단 용좌
• 포천(약천사):대웅전 문짝 일체
• 단양(천진사):대웅전수미단일체경탁법상
• 서울(학림사):목탁 불사 그외 다수 시공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貞玉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 · 8월 검정고시 국졸 · 중졸 · 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 · 재수생 · 직장인 · 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업계 유일한 테잎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 철저한 1 : 1 「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십계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 · 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 · 高 · 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전원졸업목표 ➡(영 · 수)「비디오강의교사」특별제공 (시가15만원)
불규칙 학습관리! 전화점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주고받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작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달성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최경일(남, 27세) 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안의동 혜문일안빌딩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씨비스 080—023—4600

"내 연등은 내손으로 만들자"

도반들과 어울려 불심으로 연잎말며 공동체의식 배워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찰마다 연등제작이 한창이다. 스님, 신도가 어우러져 꽃잎을 말면 한쪽켠에는 아담하고 우아한 연등이 쌓여간다. 엄지와 검지 손가락의 빨간 물이 짙을수록 괜히 어깨가 으쓱한 때이다. 방마다 빙 둘러앉아 연잎을 접을 때 노보살님이 들려주는 옛 인과응보 이야기는 그대로가 법문이 되곤한다.

그러나 요즈음 사찰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러한 정감있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회가 현대화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다보니 사찰을 찾아 등을 만드는 불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의 사찰들은 연등 제작할 일손을 구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4-5년 사이에 급격하게 일고있는 현상으로 연등보다는 주름등이나 팔각등처럼 완성된 등을 주문하는 일이 늘



◇손길이 많이 가는 연등 제작이 해마다 10% 가량 줄고 있는 가운데 서울 봉은사 산하 각종 신도회는 금년부터 연등제작에 동참, 불심을 키우고 있다.

사찰마다 일손부족…주름등·팔각등으로 대체

"가족끼리 등 만들어 '이웃에 보시' 정착돼야"

고있다.

제주의 B사는 금년부터는 아예 연등제작을 중단하고 모두 주름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B사 주지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연등을 만드는 것은 신심고양과 수행의 하나이므로 불자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어야 한다"며 "사람들의 사회생활이 바쁘다보니 억지로 강요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않아 연등제작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고지대 사찰일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깊은 산 속 암자의 경우 교통이 불편해 신도들의 발길이 뜸한데다 재적신도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지대나 신도가 적은 사찰은 사중의 대중들이 겨울부터 연등제작을 시작해 초파일을 맞고있다.

조계사 주변 불교용품 상인들에 따르면 해마다 연등용품의 판매가 10%정도 줄고있다고 한다. 더구나 전문적으로 연등을 만드는 업체가 서울에만 5-6개가 있어 이들 업체가 만든 것을 제외하면 사찰에서 직접 제작하는 연등의 수는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사찰에서 연등제작이 줄고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무상)는 금년부터 연등만들기 운동을 신도회를 중심으로 펼치고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법회, 불교대학, 신도회 등 봉은사산하의 신행단체별로 1달가량의 기간을 정해 연등제작에 몰두하고 있다.

하루에 5시간정도 연등제작에 참여하고있는 홍여연심(43.청담동)보살은 "그동안 사람을 사서 연등을 만들었으나 금년부터 각 신행단체별로 연등을 직접 제작해 신도회 기금으로 사용키로 했다"며 "연등을 제작하면서 도반의식이 싹터 신도회가 단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웃에 등 선물'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봉축위 관계자는 "불교 최대의 명절에 등공양하는 것은 불자로서 가장 큰 마음이다"며 가까운 사찰을 찾아 연등제작에 동참하기를 권했다. 또한 "불교용품점에 다양한 등재료가 많이 나와있으니 사찰에서 등을 만들 여건이 안되면 가정에서 온가족이 등을 만들어 이웃에 보시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15일 자선생활한복 발표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5월15일 불교방송국 공개홀에서 제2회 자선생활한복 발표회를 갖는다.

한복입기운동을 전개키위한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발표회는 예복, 파티복 8벌, 두루마기 2벌, 원피스, 투피스 6벌 등 약 30벌이 소개된다.

한편 이날 행사로 모아지는 수익금은 '정신대 위령탑 건립'기금으로 쓰여지게 된다.

장애인가족 50여명 야유회

덕유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영담)은 지난 20일 부천 중동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50여명을 초청, '장애인가족 야유회'를 가졌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석왕사 신행단체인 법륜회소속 기사 10여명이 참석, 장애인을 안내하고 레크리에이션과 장기 자랑을 함께했다.

2년전 교통사고로 시각장애인이된 김희성씨(70)는 "시력을 잃은뒤 처음으로 뛰어보았다"며 하루종일 웃음을 잃지 않았다.

5월 가정의 달 교계 가족참여 문화행사 '다채'

5월은 교계에 있어 어느때보다 의미있는 달이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의 중생구제를 위해 나투신 부처님 오신날과 가정과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는 각종행사가 풍성하게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5월을 맞아 가정화목과 신심고취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을 비롯한 10여개 단체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해 불자들과 함께한다.

특히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부처님 오신날에는 피크이다.

전국의 각사암과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마련되는 5월행사는 경노잔치, 어린이 백일장, 청소년 예술제, 분화재 탐방등이 주를 이룬다.

가정의 달 5월, 자비로운 부처님 품안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도 가정의 달을 의미있게 보내는 일일 것이다.

행 사 명	주 최	일 시	장 소
가족과 함께 남한산성 걷기대회	현대불교신문·한국불교청년회	5월 5일	남한산성
제2회 전국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	원간 법공	5월 5일	목아박물관
건강가족 마라톤대회	목동청소년회관	5월 5일	회관주변도로 5.5km
시민들과 함께하는 우리민속 한마당	두레문화기행	5월 5일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
어버이날 자녀되어 드리기	김음종합사회복지관	5월 6일	복지관 강당및 가정방문
어버이날 꽃달아드리기	(사)청교련 대전지부	5월 7일	대전시내 무료양로원
경노잔치	법동종합사회복지관	5월 8일	복지관
연극 선덕여왕 공연	극단 동쪽나라	5월11~12일	등승아트센터 대극장
청소년 문화대축제	조계종 포교원	5월12일	올림픽역도경기장
무료급식	조계종 복지재단	5월14일	탐골공원
제3회 연꽃노인잔치	흥국사·보현사	5월15일	삿갓봉공원
내고장 문화재 탐방	(사)청교련 대전지부	5월19일	월평산성, 계족산성등
청소년 음악회	목동청소년회관	5월19일	목동청소년회관 극장
제9회 청소년 종합 예술경연대회	(사)청교련 중앙본부	5월26일	등국대 중강당
제1회 참나청소년및 지도자 통일문화 예술대전	한국불교청년회	5월26일	용산 전쟁기념관
사랑의 편지쓰기	원곡청소년센터	5월28일	
독경대회	조계사	5월28일	교육문화회관

만화 法句經 법구경



이 향 원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최신간

남 NANSEN 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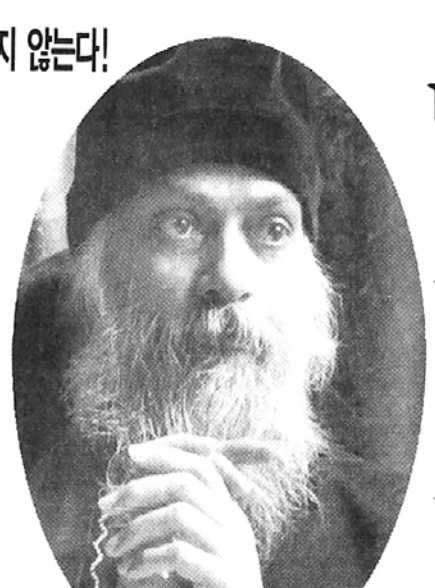
날아가는 새는 푸른 하늘에 발자국을 남겨 놓지 않는다!

깨달은 자들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는 어떤 붓다의 뒤도 따라갈 수 없다.
오직 그대만의 길, 그대 홀로 걷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그대만의 존엄성이자 크나큰 자유를 의미한다.

남전선사는 선(禪)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중대한 이정표를 남긴 몇 안되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에 이르러 선은 작은 물줄기가 아니라 거대한 대양이 되었다.
그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시켰으며,
그 〈함께 있음〉 안에 비로소 전체성과 기쁨이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펼쳐보이는 다양한 선의 세계를 접함으로써,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변형시켜가는 전체적인 인간으로,
더 나아가 보다 획기적인 깨달음의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신국판 / 값 5,5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가 당신을 만난다면 그 즉시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이고,
조주는 그 남은 몸뚱어리를 부처의 몸으로 조각할 것이며,
임제는 부처의 머리를 가져다 그 몸에 붙여줄 것이다.

임 RINZAI 제 — 고정된 틀을 깨어 신(神) 없는 원시이고 불타주는 임제선사의 생생한 역설의 가르침!

조 JOSHU 주 — 인간이라는 동물이 되도록 못다를 추구해내는 출중한 장인정신의 소유자 조주의 선과 명언의 세계!

마 MATZU 조 — 당마대사의 기묘한 방을 일깨는 미소선사의 빛나는 족적!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각권 값 5,000원

법구경 ❶ ❷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갇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했다.

신국판 / 전 2권 / 각권 값 6,500원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이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이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샘물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탄드라비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내 영혼이 눈뜬 최초의 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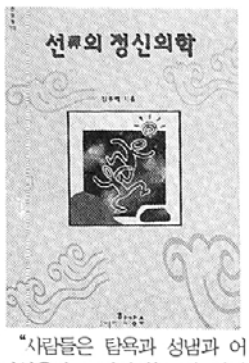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112가지 명상 비법 무삭제 완역 공개!
인도 5000년의 지혜
〈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
국내 출판 사상 최초 완역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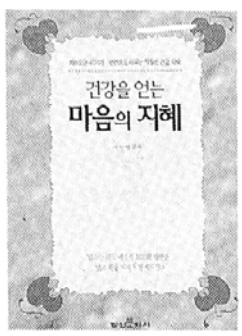
신국판 / 전 4권 / 각권 값 6,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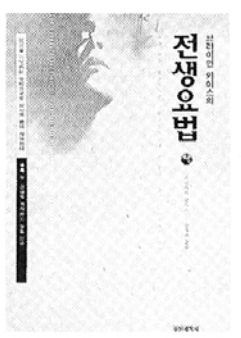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선의 정신의학' '…전생여행' '나는 환생을…' 등

심리요법책 잇달아 출간

참선효용 정신의학적 측면 분석
임상경험통한 전생치료법 소개
'마음 다스리기' 건강법 구체 제시

"사람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교만이라는 네 가지 독화살이 있어 병의 원인이 된다 〈열반경〉."

질병의 원인이 마음에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최근 마음의 안정과 각성을 통해 심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심리요법을 다룬 책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각종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선의 정신의학적 효과를 다룬 〈선의 정신의학〉과 '심(心)의학 사전'을 부제로 한 〈건강을 얻는 마음의 지혜〉, 최면술을 이용해 전생의 사건을 떠올림으로써 증상을 치유하는 전생요법(past-life therapy)을 주제로 한 〈김영우와 함께 하는 전생여행〉 〈브라이언 와이스의 전생요법〉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등이 그것.

故 김종해 국립정신병원 정신과장의 〈선의 정신의학〉(한강수 刊)은 마음의 안정과 자기발견, 또는 자기실현을 위해 형성된 선의 효용을 정신의학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신라 불상 사진의 시각적 암시효과로 환자의 자각을 유도하는 영상요법(影像療法)을 창안했다. 동서고금의 건강 및 치병의 명언과 격언, 기타 일화들을 통해 심의학을 소개하고 있는 〈건강을 얻는 마음의 지혜〉(정신문화사 刊)는 '읽으면서 치유한다'는 부제를 달고 있다. 심의학연구가인 저자 이여명씨는 "만병의 근원은 마음에 있고 병이 치료되는 것도 알게 모르게 마음이 작용한 때문"이라며 '마음 다스리기'를 통해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건강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 처음으로 전생(퇴행)요법을 도입, 1백명의 환자를 치료한 임상경험을 책으로 엮은 김영우 신경정신과 원장의 〈김영우와 함께 하는 전생여행〉(정신세계사 刊)은 각계의 다양한 반응을 받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해 '환자의 체험이 환상이 아니냐'는 등의 의혹도 사고 있지만 김영우 원장은 "이유없는 질병과 정서 장애는 많은 경우 전생에 그 원인이 있고, 그 전생을 기억하면 치유된다"며 자신의 임상치료 결과를 확신하고 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기도 한 그는 "종교를 떠나 경험적인 임상데이타를 근거로 전생요법을 국내에 소개하게 됐다"고 말한다.

전생요법은 60년대부터 몇몇 심리치료사에 의해 주장돼 오다 88년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 브라이언 와이스가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는 책을 펴내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생연구치료협회와 미국임상최면학회에서 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와 〈전생요법〉은 지난해 말 정신세계사에서 번역 출간됐다.

이처럼 질병 치료를 위해 다양한 심리요법이 소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인환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불교는 마음과 몸의 조화에 바탕을 둔 심신일여(心身一如)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며 "미신적인 요소를 담지 않은 심리요법의 소개는 현대의 다양한 정신병 치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책은 정신의 양식입니다" 제1회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책과 더불어 저작권을 이해하며' 행사가 4월 23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문인 22명이 책과 장미, 저작권관련 소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책과 한 송이 장미꽃을 받고있는 김영수 문체부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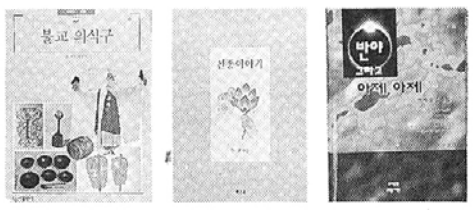
'선이란 무엇인가' 등 벽산스님 펴내

〈선불교 입문〉 〈선의 산책〉 〈불교란 무엇인가〉를 쓴 벽산스님(진해 대광사 한주)이 〈선이란 무엇인가〉(상·하)와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를 홍법원에서 펴냈다. 〈선이란 무엇인가〉는 스즈끼 다이세쯔(鈴木大拙)의 〈선사상사 연구 제1〉과 〈禪전집 제1권〉을 번역한 책이다.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는 생사와 해탈, 자리이타, 천상천하유아독존, 불교개혁안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적 필치로 쓴 수필집.

日불교학 연구서출간

일본유학 소장학자

일본에서 인도학·불교학을 전공한 한국 소장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의 인도철학·불교학 연구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정리한 〈일본의 인도철학·불교학 연구〉가 아세아문화사에서 출간됐다. 일본 인도철학의 연구성과를 분야별로 종합 진단·고찰함으로써 100년이 넘는 일본 근대불교학의 장 단점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새로나온 책…

▲불교 의식구(홍윤식 저)=불교의식의 기능과 의미, 구성, 신앙적 구성 등 의식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의식용구와 불교공예, 의식용구의 구성체계, 전통문화적 의미 등의 순으로 다루고 있어 불교의식의 세계를 개관할 수 있다. 〈대원사 3천5백원〉

▲선종이야기(홍희 저)=초조 달마로부터 장로 청료(1097~1152)등에 이르기까지 중국 선종사에 등장하는 대부분 고승들의 일화와 선문답을 모았다. 〈동문선 8천원〉

▲반야 그리고 아제아제(도암 저)= 관자재보살의 해탈과정과 그 원인, 색과 공의 실상과 그 세계, 보리살타의 근원과 그 상태, 삼세제불의 무상정등정각과 그 위치, 반야바라밀다의 실상과 그 실체 등을 독창적으로 분석한 신행입문서다. 〈의정서원 6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달을 듣는 강물	김 진 태	해 냄
2	기도	일 타	효 림
3	능엄경주해	운 허	동국역경원
4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5	저마다 깨친 인연이 있었네	김 원 한	우리출판사
6	업보	혜 범	밀 알
7	삶에서 깨어나기	틱 냑 한	장 경 각
8	달마에서 경허까지	박 영 규	성신세계사
9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10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무 비	민 족 사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원효 '십문화쟁론'



서 수 생 〈경북대 명예교수〉

화쟁 사상은 평등·평화 원리
정신혁명 모델 삼을 수 있어

신라시대의 불성(佛聖) 원효(元曉)대사는 230여권의 논주서(論註書)를 지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 저술이 이 〈십문화쟁론〉이다.

그 원전이 다 전하지 않고 있지만, 경판은 해인사 사간장경전(寺刊藏經殿)에 봉안되어 현전하고 있다. 상권 중 2판(二板) 4장(四張)(9, 10, 15, 16)이 현전하고 있는데 이 경판은 고려 고종 때, 현전 팔만대장경(재조장경)보다 훨씬 이전에 새겨진 경판인 것 같다.

이 〈십문화쟁론〉의 경책은 필자가 1954년, 1968년, 1973년, 1976년에 걸쳐 4회나 대장경을 조사 연구하면서 찍어 보관하고 있다. 9, 10장은 공유(空有)에 대한 화쟁이론이며, 15, 16장은 불성무유(佛性無有)에 대한 화쟁론이다.

원효의 화쟁사상(和諍思想)을 정립하는 그 전형적 경(經)과 논(論)은 〈열반경〉·〈법화경〉·〈기신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열반경종요〉는 화쟁의 이론을 자세히 제시하였고, 또 〈법화경종요〉에도 일체 언교(言敎)가 일승교(一乘敎)이며, 무량승(無量乘)이다. 모든 경론과 대소승교의 (大小乘敎義)가 다 법화일승(法華一乘)에 귀일(歸一)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원효는 일승관(一乘觀)을 주장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일승관에 입각하여 대소승 삼장(三藏)을 다 일승에 이르게 하는 방편도(方便道)이므로 그 교의에 대하여 시비와 장단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그 진의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 곳에 시비 쟁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화쟁론의 기점이다. 따라서 화쟁사상의 궁극 목적은 일승불교(一乘佛敎)의 구현에 있다고 본다. 그 일승불교의 이념이 바로 통불교(通佛敎)다. 이 통불교의 이론체계가 곧 화쟁사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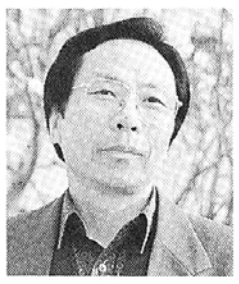
이 화쟁사상을 현대적으로 쉽게 말하면, 총화통일의 사상이요, 평등 평화건설의 원리라 할 수 있다. 불교의 원리에서 보면 유물론과 유심론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심(心)과 물(物)이 진여법성으로 평등일여다. 오온법(五蘊法)과 육대(六大)가 인연따라 중생과 국토, 정신계, 물질계에 구현된 것이니 본래 이원(二元)이 아닌데 현대철학이 이원으로 갈라세워 민주·공산 등 두세계로 양분하는 모순성도 나타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화쟁사상을 좇아 현대적으로 유추하면, 물심일여(物心一如)·개전불이(個全不二)·만물화쟁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이 화쟁사상은 신라 삼국통일의 근본원리요, 오늘날의 국민총화와 남북통일원리라 할 수 있다. 삼국통일에 '3'은 '1'로 귀일하게 되며, 남북통일의 '2'도 '1'로 귀일케 된다. 그러므로, 원효의 화쟁사상을 오늘날 한국민이 살아가는 기본정신·혁명의 원리로 삼을 수 있다.

불교의 다양한 사상체계를 조화롭게 통일하고 있는 〈십문화쟁론〉은 동과 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잇는 국민정서를 하나로 모으는 원리를 담은 원효 저술의 백미로 민족의 대성사 원효스님을 한층 가깝게 느낄 수 있다.

"불교정서는 한민족 숨결이죠"

소설 '공무도하가' 펴낸 안 문 길 씨



"우리에겐 〈서유기〉 〈아라비안나이트〉 등 다른 나라에 비견할 만한 이야기가 없는 걸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수천년 동안 조상이 남긴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 우리의 성정(性情)에 맞게 윤장하고 장쾌한 재미있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혜초스님의 기행문 〈왕오천축국전〉을 글의 골격으로 삼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정시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와 그 당시 유행했던 향가 등 노래와 그에 얽힌 설화를 접목시켜 구성한 장편소설 〈공무도하가〉(자유지성사 刊)의 저자 안문길씨(54·충암고 교사)는 "국민적인 얘기 거리를 위해서는 불교적인 정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향가·설화내용접목 고행의 의미 되새겨

한국불교의 대성(大成)과 나라의 중흥을 걸머지고 서역 20만리 만경창파에 몸을 던진 혜초(慧超)스님과 그를 따르는 소년 화랑 죽지랑과 기파랑, 장차 백제 무왕이될 운명으로 태어나 혜초스님을 위기때마다 구하며 선업을 쌓는 용자(龍子) 서동의 용맹과 기지,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될 선화공주의 지순한 사랑이 소설의 줄거리다. 작가는 소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야기를 끼워 넣고 전개시킬 수 있는 피카레스크식 방법과 비슷한 시기를 한 시대로 묶는 동시 구성법 등을 적절히 활용했다.

지난 91년 처절한 삶 속에서도 자신의 장기를 몽땅 기증하는 한 노인의 존엄한 생을 그리며 '죽음과의 화해'를 시도한 단편 〈아버지의 뜨락〉으로 등단 (월간 문학예술)한 그는 현재 세속을 벗어나 자연에 노니는 〈걸인과 개〉등 장·단편을 쓰고 있다.

"이 소설로 인해 외래문화에 빠져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본류를 알고 고행의 의미를 도새기게 하고, 인간 본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케 해 주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재〉

현대불교신서 3

능가스님의 알기쉬운

법화경강설

釋能嘉편저 / 정가 4,000원

능가(能嘉)스님이
대승경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법화경을
현대인이 알기 쉽게 풀어쓴 역저!
노스님의 지혜와 애정이 베어있는
쉬운 법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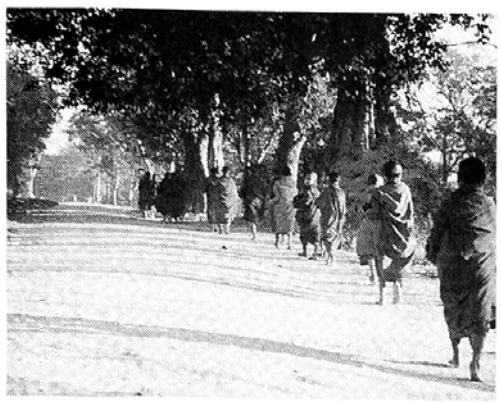
능가스님의 법화경 강의 안내
매월(양력)1일 오전11시~12시까지
법어사 내원암에서
능가스님의 법화경 강의가 열립니다.
연락처 (051)508-5165

佛 書 專 門 出 版
大 興 企 劃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B/D 101호
전화 (02)738-6270, 735-7202
FAX (02)733-1016

현대불교신서
1. 문수사리소설 마하반야바라밀경 李東炳역·釋能嘉감수
부처님과 문수보살이 직접 설한 경으로 일행삼매(一行三昧)를 통한 진리에의 도달을 강조한 지혜의 보고 값/3,000원
2. 대장부론 李東炳역·釋能嘉감수
물질에 찌든 현대인에게 보시를 통한 자아의 발견과 보다 나은 인간세상 건설을 위한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 값/3,000원
3. 법화경 강설 釋能嘉편저
4. 육묘법문 李東炳역·釋能嘉감수
옛 승려가 빨리 깨달음을 얻으려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행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서술한 지혜의 샘 값/3,000원
5. 금강경 육조해 근 간
6. 반 야 경 근 간
* 대흥기획의 현대불교 신서는 알찬 내용을 담아 계속 간행됩니다.

불교가 어려워서 쩔쩔매는 분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고, 친절한 무비스님의 불교 안내서!
신간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책장이 술술 넘어갑니다. 글씨도 보기 좋습니다.
이 책은 무비스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듯한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딱딱한 교리도 놀랄만치 쉽게 설명합니다.
근래 불교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불교책이 모두 어려워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쩔쩔맨다고 합니다.
우리시대 불교의 석학이신 무비(無比)스님이 펴낸 〈불교공부〉는
불교방송에서 강의한 내용으로 우리같은 초심자나 신도들에게는 물론
불교에 심취해 있는 분들에게도 더없이 친절하고 반가운 안내자입니다.


신국판 400쪽/값 8,000원
또하나의 역작 무비(無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전 12권/값 160,000원
민족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732-2403~4 팩스 739-7565
*이 책은 불교방송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법보시 주문은 할인해 드립니다.



◇영담스님의 미얀마사진展이 18~21일 예총화랑에서 열린다.

초파일 사찰 문화행사 「풍성」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각 사찰에서는 부처님 탄생을 봉축하며 불자를 비롯 일반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음악회 사진전 백일장 무용 마당극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 서울 봉은사는 오는 8일 저녁 7시 여의도 KBS 홀에서 봉축기념 음악회를 봉행한다. 봉은사 남녀혼성합창단 2백여명이 참가하며 KBS국악관현악단이 협연,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다. 1부는 문현스님과 중앙승가대 스님 1백여명이 동참하는 예불의식과 승무, 바라춤, 탑돌이, 2부는 유동렬씨 지휘로 '우리도 부처님같이' '초파일의 노래' '연등' 등 합창과 테너 최조웅씨 소프라노 김현숙씨의 독창이 선보인다.

○… 경국사(주지 대운)도 오는 18일 저녁 7시30분 여의도 KBS 250여명의 5부합창으로 국립관현악단이 협연한다. 만행(萬行)의 근본인 효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부모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보는 '부모은중송' 공연에는 안숙선 김성녀 김영임등 경기창 남도창 등 국악인들이 다수 참여한다.

○… 대구 칠보사(주지 무상)는 오는 8~11일 칠보문화축제를 갖는다. 8일 개막과 더불어 사물놀이 바라춤 국악대향연과 노인위안잔치, 9일 시민들이 참여하는 노래경연대회 및 연예인 공연, 10일 세미나 합창대회 백일장 등이 열리며 11일 마지막 날에는 체육대회와 사물놀이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4일간 내내 바자회와 서화전, 꽃꽂이대회, 전통찻집 등이 열린다.

○… 부천 석왕사는 주지 영담스님이 세차례에 걸쳐 실시한 미얀마기행에서 찍은 '부처님과 탑의 나라 미얀마' 사진전을 오는 18~21일 서울 예총화랑에서 갖는다. 사진첩출간 기념도 겸해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파간의 쉐지곤탑' 등 총 50여점의 사진이 전시된다.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석왕사 사진동우회 심상의 봉축사진전도 함께 개최되며 심상은 오는 23~24일 석왕사 전시실에서 또 한차례 전시를 갖는다. 석왕사는 이외에도 서예·사군자전(17~24일 석왕사 지장전), 불자미술인전(18~22일 부천시홍보전시관) 등 문화행사를 갖는다. 〈숙〉

봉은사·경국사 KBS홀서 봉축음악회
불광사 '부모은중송' 국립관현악단과 협연
대구 칠보사 8~11일 '칠보문화축제'

성인병예방 효과 맛 독특 조리법 간단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김연식씨 '외식 상품화방안 연구' 발표



◇김연식씨

육류를 피하고 오신채를 넣지 않고도 맛과 영양에 균형을 잃지 않으며 독특한 맛의 경지를 이룬 사찰음식. 사찰음식이란 오신채(마늘 파 달래 부추 홍거)와 육류를 뺀, 산채 들채 나무뿌리·열매·껍질, 해초류 곡류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되 조리방법이 간단하여 주재료의 맛과 향을 살리도록 양념을 제한하고 인위적 조미료를 넣지않은 음식이다. 육식으로 인한 성인병이 우려되고 세계적으로 채식주의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건강음식으로서 사찰음식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식단개발과 국가·종단적 육성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연식씨('산촌' 대표)는 지난달 23일 중앙대 산업교육대학원 외식산업경영자과정이 마련한 '한국외식산업의 선진화' 주제의 세미나에서 '사찰음식의 외식 상품화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발표를 통해 사찰음식의 맛과 장점, 대중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찰음식이 외식상품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맛의 유지와 다양한 메뉴개발이 필수조건이 되어야 하며, 사찰음식의 조리법을 보존, 전수자를 보호, 육성시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과 자료들을 문서화시켜 집대성하는 국가적 육성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명칭의 음식도 각 지방의 절에 따라 만드는 방법에 차이가 있게되고 당연히 맛의 차이가 두드러져 유서깊은 산사에는 독특하고 유명한 사찰음식이 전해온다. 궁중음식과 사찰음식은 전래의 특수음식으로 쌍벽을 이루어 왔으나 궁중음식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비해 사찰음식은 특수한 환경에서 구전으로 내려온데다 최근 사찰에까지 파급된 인스턴트음식의 확산과 행자기간 축소로 인해 점점 그 맥이 끊기고 있다.

김연식씨는 사찰음식전문점 '산촌'을 찾은 고객 1백명대상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찰음식의 확산을 위해 보다 대중적인 식단 개발과 적정가격설정이 선결돼야 함도 강조했다. 현재 사찰음식을 기본으로 하는 채식위주 음식점은 '산촌' 외에 '풀향기' '산골'등 10여곳. 이곳들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진출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식업계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김씨는 "과학적 운영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찰음식이란 특수성 때문에 메뉴개발에 필요한 조리법에 대한 기록이나 지식이 충부하지 못하여 모방업체의 난립이나 고객의 미각이 변화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현실이므로 앞으로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김연식씨는 세권, 가죽김치(통도사), 상치불뚝김치와전, 송차(해인사), 갓김치와 죽순김치(송광사), 민들레잎김치(대흥사), 참나물김치(신흥사), 머위대 무침(법주사), 배추꽃밥(범어사) 등 각 사찰에서 내려오는 고유 음식의 요리법도 소개했다.

이경숙 기자

세계 각국 '차문화'접할기회

25~28일 제4회 국제 차문화대회
日·중국등 국내외 600여명 참석
강연·세미나·답사·발표회등 '다채'

세계 차인들이 모이는 국제 차문화대회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국제차문화교류확대와 차인 상호간의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가 주최하며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지아 태국 인도 미국 등 외국 차인 3백여명, 국내 차인 3백여명이 참석할 예정.

25일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갖는 개막식 및 '차의 날' 기념식부터 시작되는 행사는 강연(25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차관련 학술세미나(25·26일) 세계차문화발전을 위한 두리차회(26일 창경궁) 세계행다발표회(27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28일 성북동 예향) 등으로 진행되며 대회기간동안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는 차관련 각종 전시회가 계속된다. 폐막식후 29일에는 쌍계사 보성다원 다산초당 일지암 해남차밭 등지로 차문화유적지 답사도 행해진다.

한편 이번 행사는 일반인들도 부담없이 여러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 한국전통차문화는 물론 각국의 차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차문화대회는 격년제로 개최되며 지난 3차 대회는 94년 중국 운남성 곤명시에서 열렸다. (02)734-5866

수묵담채로 표현한 '달마도'

동성스님 서울·부산서 묵적전
동양적 사유 파격묘사…선정삼매 느껴
"달마대사 내적 자유의지 표현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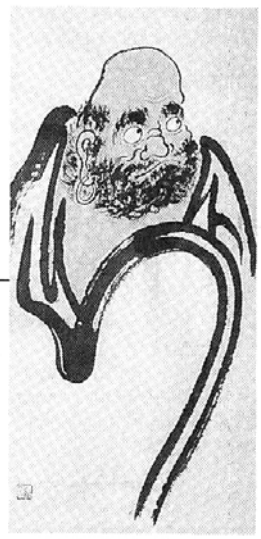
선화의 대표격인 달마도. 우리는 달마상을 통해 동양적 사유의 모습과 깨달음을 향한 선정삼매의 정신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달마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동성스님(마산 봉국사 주지)은 5월15일~21일 서울 세조형갤러리, 5월 27일~31일 부산 국제신문 문화전시관에서 달마도를 중심으로 한산 습득 풍간도 등 160여점 묵적전을 갖는다. 기존 다섯번의 모사중심 달마도 전시와는 다른 파격의 미를 시도해 달마도에 있어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동성스님은 "달마를 그린다는 것은 규정된 스타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달마의 내적 자유를 닮는다는 의미"라며 이번 전시에 대해 "달마의 인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직관력, 집중력, 통찰력 등을 표현하려 했다"고 밝혔다.



◇동성스님

스님의 달마는 수행정진의 본질을 강조하기 위해 얼굴은 수묵담채로 수염은 갈필로 옷은 일필휘지의 비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중국 달마와는 다른 한국적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달마의 진정한 상징적 의미와 하나가 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하는 동성스님은 달마도 뿐 아니라 글씨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경〉



◇동성스님作 '달마도'.

동국문학인 인명록 발간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소장 홍기삼)는 동국대 개교 90주년과 국문과 창립 50주년을 맞아 '동국문학인 명록'을 펴냈다. 지난 94년 발간한 인명록의 수정증보판인 이 인명록은 시 시조 소설 평론 수필 희곡 시나리오 아동문학 번역 등으로 분류, 작고 및 현역 문인 총 430여명의 등단시기, 주요작품, 현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록했다.

7일까지 최금자 개인전

소천 최금자 개인전이 5월1일부터 7일까지 관훈동 서경갤러리(733-0434)에서 열린다.

새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최씨의 네번째 개인전으로 〈숲속의 학이 쓰는 시〉등 45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 전시는 특히 전문신문발전을 위한 기금마련 차원에서 개최된다.

불심시심 〈51〉

동산 북산 서산

百里千里萬里路 (백리천리만리로)	백리 천리 만리의 길
東山北山西山層 (동산북산서산층)	동쪽 북쪽 서쪽 층층의 산
野寺草庵多少刹 (야사초암다소찰)	들절 초가 암자 허다한 절
少年年老老長僧 (소년년로로장승)	소년 장년 늙어가는 중

위 시는 월저(月渚)대사가 김창흡(金昌翕)에게 차운한 시이니, 당시 내노라 하는 큰 선비가 대사에게 보내온 시에 대하여 화답해 지은 것이다.

스님들에게 누가 무어라 하든 스님은 스님이다. 천리만리 아무리 멀다 해도 그저 걸음걸이가 닿는 곳이 그의 처소요, 멈추는 곳이 그의 거처이다. 뚫려 있는 길이 천리면 그대로 천리, 만리면 그대로 만리니, 길은 길로서 길의 구실이 다하는 것이요, 그 길을 길로 삼는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가는 이의 몫이다. 스님의 발길은 그저 그 길을 길로 여겨 따라가는 듯이 보이니, 그것이 바로 어디에도 구애됨이 없는 스님들의 탈속함이 아닐까 여겨진다. 지금 이 시에서도 그러한 무집착의 기개가 돋보이는 것이다.

동서남북이 산과 산으로 첩첩이 둘려 있음은 길이 길로 이어져 끝간 데 없음과 같음이요, 스님의 발길에 굳이 정처를 묻지 못할 일과도 같다. 동서남북의 산은 산 자체로서 층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진리의 세계인 것이다. 꾸밈이 없는 여실한 실상의 자연 그대로이다. 스님 또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산사이든 야사이든 절은 스님이 있는 곳이요, 스님이 있으면 어린 사미승이나 노스님이 함께 있을 것은 또한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 또한 있는 사실에 대한 그대로의 상태를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또한 절과 중이 있는 그대로의 진리이다.

이 시는 이렇듯 길과 길, 산과 산, 스님과 스님을 있는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매우 단조로워 보이지만, 이 단조로워 보이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시의 뛰어난 점이다. 어쨌면 우리가 산사에 갔을 때 적요하게 느끼던 그런 분위기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아무 수식없이 한 단어 한 단어를 툭툭 던져 놓은 듯한 이 점이 이 시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매력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고객감동!!

고객의사랑,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LG전자

신성시스템이 경진 C&C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고객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Computer & Communications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16-9 전자랜드 신관 3F 7호
T : 715-8855 (대표), 712-0544

LG 노트북
•Sound카드및 스피커 내장으로 노트북에서도 멀티미디어 구현
•14,400bps초고속 FAX/Data Modem내장
•세계최초 적외선 방식의 무선 Trackball장착
•착탈식HDD,LCD,CPU의 사용으로 손쉬운 Upgrade
• PCMCIA Type Ⅰ, Ⅱ 지원



486DX2-75MHZ(GN40C7587)
* 기본메모리 8MB * HDD 340MB
* 9.5" STN COLOR LCD
* PCMCIA SLOT 지원 (TYPE Ⅰ or TYPE Ⅱ)
* 무선 Trackball내장 FAX/MODEM(14.400bps)내장



486DX4-100MHZ(GN40C0099)
* 기본메모리 8MB * HDD 540MB
* 10.4" TFT COLOR LCD
* PCMCIA SLOT 지원 (TYPE Ⅰ or TYPE Ⅱ)
* 무선 Trackball내장 FAX/MODEM(14.400bps)내장

심포니 Tower
• 기본사양
• 기본메모리 8MB • 캐쉬메모리 256KB • 비디오메모리 2MB • HDD 1.28GB • FDD 3.5"
• I/O-PORT 2SIO, IPIO • 사운드 카드 PMC방식의 16Bit 사운드카드
• 기본제공 S/W 한글윈도우 95, V3백신, 원격서비스 프로그램

Pentium-166MHZ(GT53H166C)	Pentium-133MHZ(GT53H136C)
· CD-ROM드라이브 6배속 · 확장SLOT 3P,4I · Fax/Modem내장 · S/W MPEG제공 · 비전팩(OPTION) · 나우누리 1개월 무료이용권 · 인터넷 1개월 무료이용권	· CD-ROM드라이브 6배속 · 확장SLOT 3P,4I · Fax/Modem내장 · S/W MPEG제공 · 비전팩(OPTION) · 나우누리 1개월 무료이용권 · 인터넷 1개월 무료이용권
Pentium-100MHZ(GT53H005C)	**Pentium-75MHZ(GT53H755C)**
· CD-ROM드라이브 4배속 · 확장SLOT PCI3, ISA4 · Fax/Modem내장 · S/W MPEG제공 · 비전팩(OPTION) · 나우누리 1개월 무료이용권 · 인터넷 1개월 무료이용권	· CD-ROM드라이브 4배속 · 확장SLOT PCI3, ISA4 · 기본타이틀 4종 제공 · 비전팩(OPTION)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멀티미디어 기능
LG심포니Ⅱ

홈 PC



Pentium100MHZ(GS50H008CX)
■HDD 1.28KB
■CD-ROM 드라이브 4배속 ENHANCED IDE방식
■스피커 5와트(채널당)고출력 스피커 내장
■리모콘 마우스기능.노래방선곡기능. TV 비디오 CD조정기능(비전팩적용시)

심포니 Ⅱ



Pentium166MHZ(GH53P169EF)
■기본메모리 16MB ■비디오메모리 2MB
■HDD 2GB
■CD-ROM 드라이브 6배속 ENHANCED IDE방식
■사운드 카드 PCM방식의 16bit사운드 카드
■스피커 10와트(채널당)고출력 스피커 내장 (오디오형 스피커)
■리모콘 마우스기능.노래방선곡기능. TV 비디오 CD조정기능(비전팩적용시)
■Fax/Modem내장
■기본타이틀 9종제공 ■비전팩 (option)

모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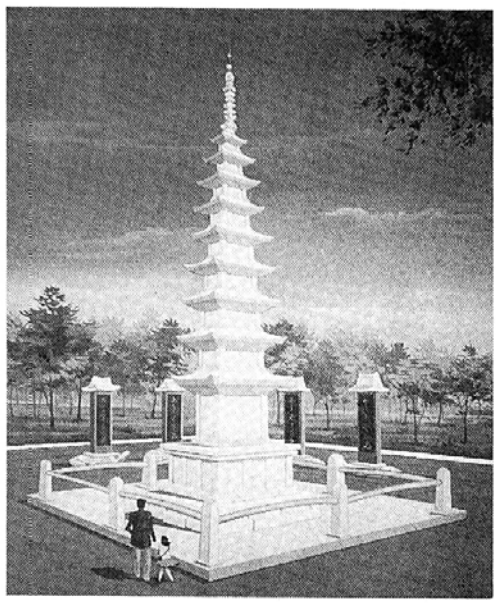


NEW
15" '95일본GD마크획득 '95헬로우PC선정최우수제품 15S
■최대해상도 1280*1024ni(MAC호환)
■수평/수직주파수 30~65KHz/50~110Hz
■스피커 일체형 하이터치 디자인
■PLUG & PLAY기능지원 (Windows'95)

레이저프린트



Laserstar660J+
(보급형 레이저 프린터)
■300DPI고해상도 개인용 LBP
■한글윈도우 및 아래이한글에서 6PPM폭속출력
■GDI(Graphic Device interface)기술을 통한 Windows환경에서 획기적인 프린팅 속도제공



불교방송 개국기념대탑 조감도

불교방송 개국 기념대탑 조감도가 나왔다. 석가탑 형태의 9층탑인 이 대탑은(높이 20m) 내년 5월 완공 예정으로 5월 1일 서울 관음사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방송가 소식

불교TV '한국의 명찰' 加서 방영

불교TV 간판프로의 하나인 '한국의 명찰'이 캐나다 국영방송인 CBC-TV를 통해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 방영된다.

이번 불교TV 프로그램의 해외진출은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영상포교의 장을 전 지구촌으로 넓혀나가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첫편에 방영될 용주사 편에서는 부모은중경의 소개와 함께 정조대왕의 효행내용등이 청소년 교육용으로 적합하다는 관점을 받았다고.

현재 CBC-TV는 한달에 한편씩 불교TV 프로그램중 적합한 것을 선정 방영할 계획이다. 캐나다의 토론토는 한국교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해 교민 2세들의 조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불교TV의 캐나다 진출에는 현지 한국 사찰인 대각사의 화선스님과 양일스님의 공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두스님은 "세계유일의 불교전문 텔레비전을 소개하고, 한국불교를 포교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양원 지원금 전달

불교TV 자원봉사단(단장 강국서)의 봉사단원 10여명은 8년째 결핵환자들을 무료로 돌보고 있는 경남 진주시의 성양원을 지난달 20일 방문, 치료비와 생필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도 펼쳤다.

성양원은 지난 89년 개원한 이래 원장 정혜스님이 결핵환자들을 돌보아온 곳으로 지난해 11월 사단법인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불교복지시설이다.

장애아동 특수교육시설 개원

원효 특수아동 조기교육센터 5월11일 공주에 90평 규모

장애아동을 부처님 품안으로 이끌기 위한 원효특수아동조기교육센터(원장 정종하·공주시 중동 147-162, 0416-857-7794)가 오는 5월 11일 개원된다.

원효특수아동조기교실은 정신지체, 자폐증후군, 언어발달장애 등의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집단지도 및 개별교육, 심리치료를 전담하게 된다. 만3세부터 7세까지 취학전 발달장애아동들에게 학습의 인지도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취학을 했어도 수업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장애어린이를 위해 개인지도도 맡는다. 개원에 앞서 원효특수아동조기교실은 이미 30여명이 학습할 수 있는 약 90평 규모의 교육장을 확보했으며 3명의 특수아동교사를 채용하고 첫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또 특수아동교사들은 각 분야에 필요한 학습도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장애아동들의 교육수준에 따른 특별교구 및 교재를 제작하고 있다.

정신지체·자폐증아동에 개별심리치료 실시
부천 석왕사·부루나포교원 이어 교계 세번째

정종하원장은 "장애아동들에게 조기교육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며 "장애아동의 언어, 인지, 사회성 등의 문제를 진단, 개별보상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발달장애아동들이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기교육센터를 개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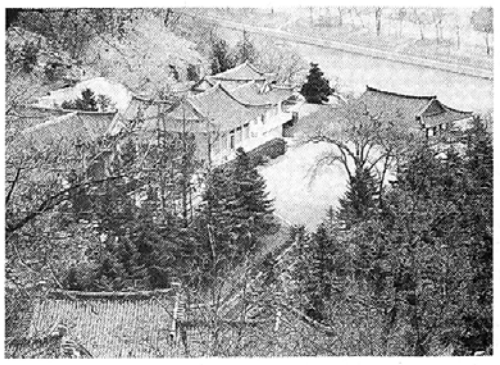
현재 교계에는 부천 석왕사, 인천 부루나포교원 2곳만이 취학전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90년 교계 최초로 개원한 석왕사 룸비니특수아동조기교실은 현재 15명의 정신지체, 뇌성마비, 자폐아동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부루나특수아동조기교육원도 21명의 발달장애, 정서장애, 자폐아동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설립과 특수아동교사의 육성이 교계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들은 "출산율의 약 4%가 장애아동으로 태어나고 있고 이들을 위한 조기교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3백여곳이 있으나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고 거의 타종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계에서도 장애인들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시설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게 열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중근 기자





◇ 94년 4월 전통가람배치에 따라 복원된 정릉사 보광전(사진 위)과 영명사. 부처님 오신날 남북공동축원문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방북한 법타스님이 촬영, 복원 이후 최초로 공개했다. 두 사찰 모두 평양의 대표적 관광코스이다.

조계종 총무부장 법타스님 방북의미

남북 불교교류 "한발짝 가까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불교도가 한목소리로 통일을 기원하는 공동축원문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타스님이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북한을 방문 조선불교도연맹 심상련 서기장에게 남측이 준비한 공동축원문 초안을 전달했다. 북한은 이에대해 문안검토 후 미주 평불협을 통해 북측의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축원문 초안에는 "분단으로 인한 애별리고의 아픔을 해소하는 것이 부처님 오신날의 참뜻을 되살리는 불자들의 도리이며, 이에따라 남북의 불교도가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는 순수한 종교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남측에서는 조계사와 북한의 보현사에서 식순과 행사내용을 통일시켜 각각 법요식 진행을 제안할 예정이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축원문 채택에 한정했다.

지난해 8.15 공동법요를 추진이 좌절된 이후 중단됐던 남북불교교류가 재개된다는 점에서 이번 방북의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방북에서는 공동축원문 채택과 함께 신계사 복원불사를 위한 협의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은 사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전체 60여 사찰 가운데 6개 사찰을 제외하고 우리의 문화재관리국에 해당하는 유물보존총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법타스님은 이번 방북에서 유물총국 관계자를 만났으며, 이는 북측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 결과, 6월경 기초설계와 비용산출을 위해 남측의 실무자들이 현지 답사를 실시하며, 이후 월주스님을 비롯한 종단협의회 대표들이 방북, 신계사 복원불사를 논의한다

초파일 공동축원문 조불련에 전달
월주스님방북·신계사복원 가시화

"득도산림 1년으로"

태고종 개혁안 의결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지난23일 총무원에서 종단중진간부회의및 시.도교구 종무원장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승려득도교육 기간 1년 확정과 분담금제도 조정, 공로위원제도등 종단개혁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승풍진작과 종풍선양을 위해 승려의 득도산림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기본예식, 사미율의및 초발심자경문, 태고종조사상, 기초교리, 비교종교, 다도, 서도를 교육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태고종신 공로위원제도를 도입하여 북한산 태고사나 인천 용궁사에 자비의 삼존불과 공로위원의 부도탑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종단의 개혁을 위한 내외적인 자료를통해 미래를 제시하는 백서발간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위해 매월 '태고종 소식지'를 발행할 계획이다.

또 종단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분담금제도를 개선하여 공유사찰의 매월 납부와 총무원 직할교구사찰의 전·후반 납부제를 실시키로 했다.



◇불교 왜곡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 '유리'의 한장면.

영화 '유리' 불교이미지 왜곡 '논란'

교 계 수행자 파계장면등 시정촉구
제작사 칸느영화제 출품 무삭제 요구

개봉도 되기전에 수행승의 살인과 정사장면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공연윤리심의위원회(이하 공륜) 심의에서 진통을 겪었던 영화 유리(감독 양윤호)가 지난달 18일 △유리와 여승과의 정사장면 완전 삭제 △유리의 살인 장면 대폭단축 △유리가 법복 입은 장면 삭제 등 모두 3곳을 수정하라는 최종심의를 받았으나 칸느영화제에는 무삭제본을 출품할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영화 '유리'는 불교계와의 마찰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칸느영화제 비평가 주간 초청작품으로 선정돼 심의가 끝나야만 영화제 출품이 가능했기 때문에 유리의 심의 종결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심의 통보이후 공륜과 제작사인 하명중영화제작소 측은 지난달 22일 다시 회동을 갖고 칸느 영화제 출품과 관련, 최소한 작품에 훼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공륜의 홍창기부장은 "공륜의 심의는 국내상영만을 고려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유리의 해외 영화제 출품부분은 공륜이 상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책임회피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국영화가 해외영화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륜의 심의를 통과해 문화체육부의 통관추천을 받아야만 하며 국내 상영작과 국제영화제 출품작이 다르다는 것은 영화법적취지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문체부 영화진흥과측의 답변이다.

한편 조계종 문화사회부 사회국장 원소스님은 "유리는 타종교영화와 비교해 봐도 수행자의 생활이 왜곡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과각의 극단적인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불교이미지를 잘못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불교계의 입장반영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계속적으로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영화의 표현자유는 인정되나 불교를 왜곡하는 파격적 장면은 허용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온〉

화합 깨는 용궁사 소송

목탁소리

김 원 우
〈취재1부 기자〉

지난 3월 12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 용궁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의 소송이 제기된 이후 제2차 공판이 지난 23일 열렸다.

원고인 조계종 석천스님(총무원 사업국장)은 "조계종의 승려로서 선대의 원덕이 스며있는 전통사찰을 관리해야 한다며 정법도량의 면모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피고인 태고종측 입장은 "대한불교 조계종에 소속된 적이 없는 종정스님 주석사찰을 세간법에 의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인천 영종도에 건설중인 국제공항주변에 있는 용궁사 5만여평 부지 활용에 군침을 돌리는 인상이 짙다. 태고종은 종단의 성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종정원건립 공사에 들어갔으며 종단 연수원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조계종도 용궁사를 환원하여 국제공항에 걸맞는 종합불교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어떠한 소송명분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 교육 복지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의 타종교 편향과 왜곡 소외 탄압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용궁사건은 화합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불교계는 일제의 잔재를 뿌리뽑고 순수성을 회복하려 했던 정화운동이 이승만 정권에 의한 '정화유시' 이후 1954년부터 시작된 비구.대처의 분규로 수많은 희생과 삼보정재를 소송비용으로 탕진하는등 엄청난 정재의 손실을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개혁종단 출범이후부터 조성된 양종단의 화해무드는 최근들어 소송제기가 늘면서 다시 분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

어느것이 정법인지의 판단은 종단의 수뇌부스님들의 몫이다. 단지 불교탄압의 조선조에도 지켜온 선조스님들의 업적을 가지고 종단주의에 매달려 소송으로 번져 불교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것이 가슴아플 뿐이다.

몸집은 비대하고 힘은 세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채 서로 아웅다웅하다 지구상에서 사라진 공룡은 우리시대 흥미거리일 수만 없다.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 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둥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넹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구입문의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본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5층)
■대한 불교 조계종 포교원 포교원(원장 각광 스님)
■부설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전화 :(051)864-3740
본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성지관음회 전화 :(0335)34-9490, 39-1906 야간 :(0342)706-3060

서울강남지회 (02)597-7381
서울강북지회 (02)747-7033
부산지회 (051)516-2713(지장정사)
대구지회 (053)323-2368
대전지회 (042)222-4936
광주지회 (062)228-8544
제주지회 (064)22-3324
경기수원남부지회 :(0331)291-8549
경남진주선성지회 (0596)73-0039
경남마산지회 (0551)23-9016

佛事 (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신비의 불탑다라니" 책자를 스님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氣가 발산됨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서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판단하여 運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현재 사암을 운영하시는 스님께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 方法은
① 신도 개개인의 현재의 運과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줄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스님께서 신도들의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줄 수 있으며
② 영가의 빙의상태, 관념과장의 방해를 확인하여, 영가의 빙의및관념과장을 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며
③ 신도들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방해 줄 수 있으며
④ 산소에 달이 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소를 잘못 써서 조상령이 천도되지 못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느 산소이든 그 산소 자리를 좋은 地氣가 넘치도록하여 후손들이 발복하도록 해줄수 있고
⑤ 집터나, 상가, 사무실 등에 좋은 운기가 계속적으로 멸치도록하여 만사형통하도록 해줄수 있는 방법입니다.

■ 상담문의: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
부설: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5동5층)
전화 : (051) 864-3740

■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4-9490, 39-1906
야간 : (0342) 706-3060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안녕하세요!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하시는 불자님들께 그동안 이 자임 결혼 연구원을 뜨겁게 성원해 주신 사랑에 보답드리는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96년 4월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기본회비 20만원의 등록회비를 무료로 실시하고 사무실 전화요금과 상담비 명목으로 적은 비용으로 불자님 가정에 다소 도움을 드리고자 좋은 만남 원때까지 책임감있게 성심성의를 다하여 성혼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을 주선하여 계속 추진해 드립니다.

■ 구비서류
· 초혼남녀 : 주민등록 등본, 졸업증명서, 사진 (각 1통)
· 재혼남녀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사진 (각 1통)
♥ 학력 : (남) - 전문대졸 · 대졸이상(고졸은 특별상담)
(여) - 고졸 · 대졸이상
♥ 연령 : 남녀 (23세~ 70세 까지)
■ 초재혼 : 여(국졸,중졸만 - 35세 까지 특별 무료 상담 환영)
■ 특수한분 :정신장애, 육신장애를 갖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께 행복한 결혼의 도움이 되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남 : 전문대졸 · 대졸이상 (고졸특별상담)
· 여 : 학력 제한 없음 (특별 무료 상담 환영)

♣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후,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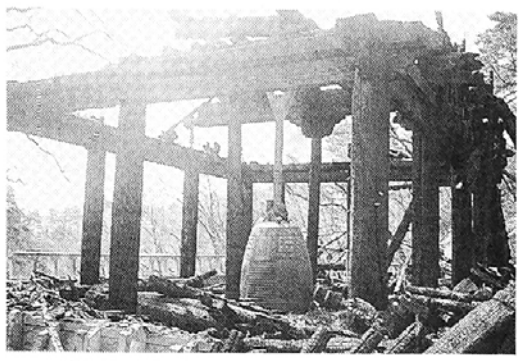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心)
농협온라인구좌 : 112-01-021221 예금주 이 영 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초파일 앞두고 사찰방화 '비상'

잇단 화재 3건 '교계 경악'…훼불 추정 철저수사 촉구

북한산 삼성암·본원정사·화계사



◇4월 20일 자정 강북구 수유동 소재 삼성암에 화재가 발생, 종각이 전소됐다.

4월20일 자경경 강북구 수유동 소재 삼성암(주지 세민)과 본원정사(주지 성원)에 이어 22일 새벽 화계사(주지 숭산) 등 북한산 일대에 동일한 수법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교계에 비상이 걸렸다.

본원정사의 화재는 대웅전과 나한전 등 목조건물 내부 50여평을 태우고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삼성암도 범종각 20여평이 전소됐고 화계사의 경우 대적광전과 요사채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대원스님이 이를 조기에 발견해 진화됐다. 화계사 측은 이날 휘발성 물질을 담았던 용기를 수거 전문감식반에 의뢰하고 자체적인 방범반을 편성 도량수호에 돌입했다.

화계사 부주지 성광스님은 "1㎞ 가량 떨어진 사찰 3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이번 방화 사건은 모두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것이 분명하고 지금까지 북한산 일대에 광신도들이 수많은 훼불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아 광신적인 이교도들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연쇄적인 방화는 북한산 일대의 사찰을 초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방화사건은 다량의 인화성물질을 사용해 사찰을 전소시키겠다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소행이란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동안 주춤했던 광신적인 이교도들에 의한 훼불행위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또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광신적인 이교도들은 불교세력을 약화시키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단배포, 봉축 현수막 훼손에서부터 사찰방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훼불행위를 수년간 일삼아 왔다.

본원정사 주지 성원스님은 "하루빨리 범종단차원의 대책을 마련, 이와같은 연쇄적인 훼불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측은 4월23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 매년 5월 이같은 방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범인 검거 등 관례적인 문제만 촉구했을뿐 종단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번 훼불사건에 대해 교계에서는 예전과 같이 경찰측은 정신이상자로 인한 단순방화사건을 처리하려는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사찰측이 화재사고에 대한 방화시설과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석림동문회등 교계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엄중수사와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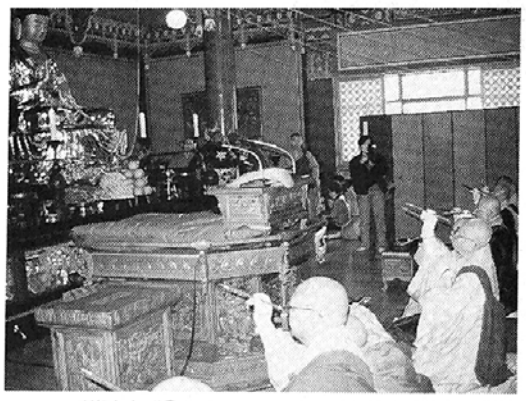
한편 북부경찰서측은 범인검거를 위해 5백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김중근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1천여단체 가입신청

조계종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한상법)에 가입을 희망한 신도단체는 모두 363개 단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4월24일 현재).

사찰신도회는 7백여곳에서 가입신청서를 보내왔다. 이는 전체 대상사찰 3천56개(선학원 및 조계종 미등록 사찰 포함) 가운데 22.9%에 머무르는 것으로 사찰의 소극적 자세를 나타냈다.



◇법련사 대웅보전 삼세여래상 점안식이 봉행됐다.

법련사 삼세여래상 점안

2일까지 '부처님은 누구신가' 특별법회

법련사 대웅보전 삼세여래상 점안식이 4월25일 조계종 원로의원 회광 석주 원담 일타 도견스님을 비롯한 6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삼세여래상은 송광사와 운문사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로 조성된 것으로, 과거 연등불과 현재 석가모니불, 미래미륵불을 함께 모신 것이다.

이날 법회에서 조계총림 방장 회광스님은 법어를 통해 "삼세여래불 대작불사를 인연으로 무량복덕을 성취하고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증득하여 마침내 불국정토에 함께 살아지이다"고 설했다.

법련사 회주 현호스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해탈에 대한 변함없는 희망의 표현이자 부처님과 함께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삼세여래상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법련사는 삼세여래상 봉안을 기념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부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월탄 현해 암도 혜인 무비 태응 설정스님을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성직자대학원 '백지화'

교육부, 불교대책위에 회신

교육부(장관 안병영)는 최근 정부종교교육정책 불교대책위원회가 교육부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낸 질의사항에 대해 "성직자 양성전문대학원을 백지화하고 종교지도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회신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성직자양성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범위내에서 현행처럼 각 종교·종과별로 전통적이고 고유한 관행과 제도에 따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따른 것이며 종교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교일반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원제도 도입맥락에서 검토키로 했다. 또 종교전문대학원 도입여부도 각 종단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쳐 10월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원 통폐합 반대"

전승련 대의원회 결의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회(회장 부겸)는 지난 17일 불국사 승가대학에서 제2차 대의원회의를 갖고, 시설과 확실한 지원체제 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원 통폐합은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승련은 강원이 없어지면 원릉산림이 없어지고 관광사찰 또는 수입사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통폐합 이전에 교육체계 확립과 강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무리 높은 문턱도 넘을수 있어요"

경주 장애인불자 김준엽씨 서울나들이



◇PC통신 천리안 불교동호회를 통해 만난 불자장애인 김준엽씨와 고연순씨가 4월20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천리안 불교동호회원 도움
'나눔의 한마당' 참여

문학제서 자작시 당선
장애딛고 검정고시 도전

PC통신 천리안 불교동호회활동을 통해 불심을 다져온 장애인 불자가 대화방에서 만난 서울의 한 회원의 도움으로 4월20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행사 '나눔의 한마당'에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선천성 뇌성마비 1급 장애인 김준엽씨가 불교동호회 게시판에 올린 차량지원과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글을 읽고 하루 자원봉사를 지원한 고연순씨와 만나게 된 것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8시30분 김포공항. 경주에 사는 김씨는 지난 92년부터 입에 막대를 물고 자판을 두들기며 동호회 활동을 해왔고, 자원봉사자 고연순씨와는 대화방에서 만나기도 하고 전자메일을 교환하기도 했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나눔의 한마당 행사에서 이들은 하루종일 경사로 하나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휠체어를 밀어주고 이곳저곳 행사장을 옮겨다니면서도 시종 즐거운 표정이었다. 특히 이날 행사의 하나였던 문학제에 김씨가 출품한 '목련'이라는 자작시가 당선하자 서로 손을 잡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장애인에게 얼마나 많은 잠재능력이 있는지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아무리 높은 문턱도 우리는 넘을 수 있거든요. 누나와 같은 분이 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즐거운 하루를 마친 김씨는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 감사의 선물로 고씨에게 자작시를 선물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종일 친누나처럼 김씨를 돌봐준 고씨는 "준엽씨가 어엿한 시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원할께요. 늘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세요"라며 PC통신을 통해 계속 만나자고 약속했다. 한편 김씨는 지금까지의 자작시 4백여편을 모아 시집을 발간할 꿈을 갖고 있으며, 검정고시준비에 여념이 없다.

남수미 기자

교계 재난구조봉사단 6월 발족

산악·해양사고 전담…등산로 순찰·행락질서 유지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서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눈부신 활동을 벌여 생존자 구조의 일등공신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재난구조대가 불교계에도 오는 6월말 한강고수부지에서 발족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불자 스쿠버동호인, 관악산 산악구조대는 지난 21일 복지재단 불교자원봉사센터내 해난·산악 재난구조 봉사단을 구성키로 하고 창단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교계내 해난·산악 재난구조 봉사단의 창단은 현재 관악산과 경남 진해에서 베테랑 산악구조대와 해양구조대로 맹활약하고 있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의해 성사된 것으로, 구조 자원봉사단은 창단후 불교계에 대형재난 발생시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돼 구조구급을 담당하게 된다.

서해 훼리호, 충주호 화재, 성수대교 사건 등 크고 작은 해난구조에서 전문 해양구조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해난구조 자원봉사단은 경남 진해를 본거지로 활동을 할 계획이다. 해난구조봉사단은 수중환경 보호작업을 병행, 자연보호에도 앞장선다.

또 산악구조봉사단은 삼풍사고때 민간인 구조대 6명 중 한명으로 위용을 떨쳤던 김지명씨가 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악산산악구조대를 중심으로 산중사찰 및 산을 끼고 있는 도심사찰의 자연환경보호,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피해의 사전 대비작업 등을 펼친다. 아울러 주말 또는 공휴일에 왕래가 잦은 등산로와 전문 산악등반코스, 야영지 등지의 순찰활동을 실시, 조난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 각종 범죄예방과 산악 수색활동, 행락질서 유지에도 불교산악구조 자원봉사단이 적극 나선다.

오는 6월말 한강고수부지에서의 대형축하무대와 함께 발족하게 되는 해난산악 재난구조자원봉사단은 창단후 전국적인 규모확대를 위한 각 지역내 연락사무소 개소와 더불어 스쿠버 및 산악구조 교육과 불교소양교육을 전개할 예정이다. 구조봉사단에는 불자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02)723-5101

위안부 유엔결의 수용 촉구

한일과거청산범국민운동본부(상임의장 김명윤)는 지난달 23일 성명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를 일본정부는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도 한일협정의 개정을 통해 호혜협력에 기반한 한일관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부터 헌혈자비행 실천

생명나눔회 조계사·동국대·동대문운동장서

(사)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동국대학교 조계사에서 헌혈행사를 개최한다.

'당신의 헌혈은 생명나눔실천의 자비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이번 헌혈행사는 오는 24일까지 동국대, 동대문운동장, 조계사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마련된다. 생명나눔실천회는 또 불교종립학교와 연대, 연등축제 기간동안 헌혈행사를 확대시켜나갈 방침이다.

나누는 연등, 나누는 마음
봉축위 연등선물하기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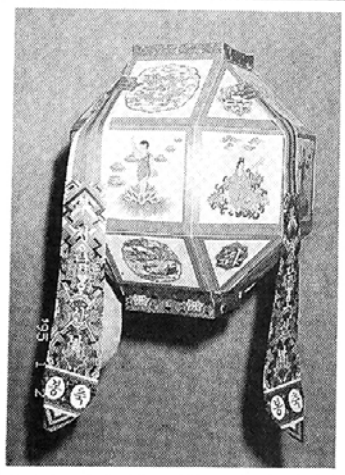
마음 삼매

지극한 마음, 흩어지지 않고 사무치는 마음, 그것이 삼매지 삼매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실용신안 : 제14461호 의장등록 : 제12382호

이제 연등에 변잡한 풀칠이 필요 없습니다!!



홍법등

오직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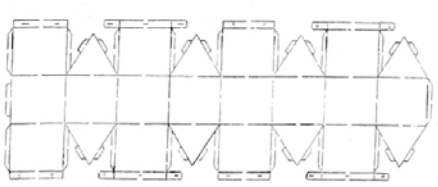
제·작·이·간·편·한·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이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2분내에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재·사·용·가·능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 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펼친상태(골조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단 한번의 공정으로 2분내 완성

*전국 불교용품점 및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취급품목 봉축행사용품 일체
홍법팔각등, 초벌등, 영가등, 천도광명등, 삼재소멸등, 만불기, 천수다라니번, 교패(불자의집, 교통안전기원패)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
홍법기획 TEL : (032) 613-4027, 4028
FAX : (032) 665-0965

복이 될 인연을 만나면 복이 되고,
불행한 인연을 만나면 불행이 온다.

불치병, 난치병, 조상묘지 상담

◎현재 많은 분들이 만성질병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고쳐진듯하다 또다시 재발하는 그 원인은?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 치료와 조상과 부모 형제의 영혼과 고혼을 편히 모셔주면 자손들이 좋은 발복을 받아 금강보광제의 영약이 되는 비법을 오링 테스트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법현법사!

◎신비한 영험을 얻는 비전을 법현법사 특별상담!

오링테스트는 생명과학의 파장테스트다.

오링테스트는 파장의 원리와 우주의 기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비법으로 테스트하면 원인과 결과가 밝혀지는 신비의 비법이다.

만성질병 상담
정신병, 우울증, 중이염, 자폐증, 불임증, 근무력증, 뇌성마비, 신들림병



묘지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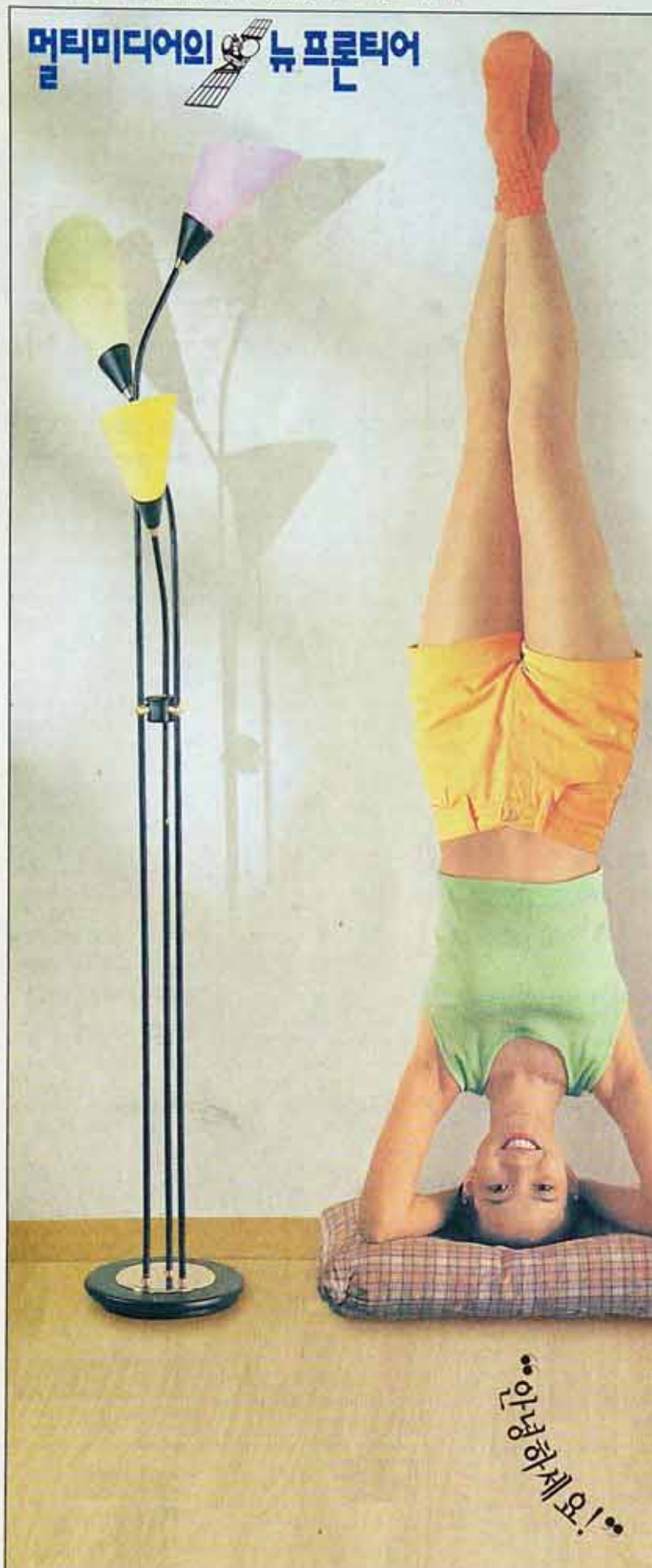
⊙조상의 유골에서 좋은 기를 받아야 자손이 복을 받게되고
⊙조상의 유골에서 나쁜 기를 받으면 불행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풍수 길·흉론이다)
⊙풍수지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특수개발한 명당 도예는 영령을 영실에 편히 모시는 영혼의 명당유택이 된다.
⊙조상과 부모형제의 영혼을 명당도예에 모셔서 땅에 묻고 왕생극락을 발원하면 대운세의 터전이 되어 좋은 발복을 받아 행복과 영광이 이루어진다.
⊙운명을 가로막는 영혼과 병고와 불행을 주는 고혼을 지극한 효심으로 명당도예에 모셔주고 극락정토에 이룩하게 하면 그 공덕으로 금강보광제의 영약이 되어 만성질병도 치료되고 행운과 소원이 성취된다.

◆ 서울상담 ◆
· 장 소 : 안국선원 (송파구 오금동, 전철5호선 방이역 100m)
· 상담일자 : 매주 금,토 (2일간)
· 상담접수 : (02) 3401 - 3259

◆ 부산상담 ◆
· 장 소 : 대한불교불심포교원 (부산본역 건너편 국민은행뒤)
· 부산 상담일자 : 월~수 4일간
· 상담접수 : (051) 465-5100, 467-5200

멀티미디어의 뉴 프론티어

이제, 손으로 전화 받는 시대는 끝났다
현대 전화기 '예써 프리'



손 끝하나 대지않고 통화한다!
전화벨이 울리면 스피커폰으로 자동 연결, 전화기에는 손끝하나 대지 않고 통화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끊으면 종료음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전화를 끊어 줍니다.

LCD에 밝은 조명이 들어와 빨리 보고, 초대형 화면으로 쉽게 쓰고!
빛을 내는 초대형 액정 디스플레이(LCD)로 전자수첩, 생일등록, 시계, 알림등 다양한 기능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어둠속에서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응답, 테이프는 없어지고 반도체에 녹음한다!
예써는 잔고장 많고 직직거리는 테이프대신 DSP(Digital Signal Processor) 반도체를 사용, 자동응답 메시지가 더욱 선명하고 확실합니다.

휴대장치에도 스피커폰이 연결되어 있어 어디에서든 편하게 통화한다!
휴대장치에도 스피커폰이 달려있어 본체와 떨어진 곳에서 바쁜 작업을 하거나 손이 지저분할 때도 선명하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조그셔틀로 필요한 메시지만 쓱쓱, 바쁘면 2배로 듣는다!
누르고, 되감는 방식이 아닌 사용이 편리한 조그셔틀이라 간편하게 자동응답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쁜 목소리로 다양한 기능을 차근차근 알려준다!
복잡한 설명서 없이도 다양한 부가기능을 음성으로 알려주므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출중 걸려온 전화는 삐삐로 바로 연락한다!
자신의 삐삐번호를 입력해 놓으면 외출시 전화가 올 때마다 자동으로 걸려온 전화번호를 삐삐로 알려줍니다.

전화기 속에 전자수첩이 들어있어 쉽게 찾고, 쉽게 걸고!
음성으로 이름을 녹음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음성을 확인하며 원터치로 쉽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집 똑똑한 비서
현대전화기 예써 프리

"원고다됐어요?"

- 자동통화기능 · 메모기능 · 자동응답기능 · 통화중 녹음기능
- LCD Lighting · 벨선택 기능 · 삐삐호출기능 · 생일등록기능
- 시서함 기능 · 휴대장치 증설기능 · 전자수첩기능 · 원격제어기능

신제품



■ 권장소비자가 : 275,000원

현대 멀티미디어 프라자 경영주 모집

대상지역 : 전국 시·군 요충 소재지
취급품목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멀티미디어제품 일체
- OA기기제품
- 통신기기제품(팩스, 페이저, 카폰 휴대폰 등)
- 뉴미디어기기(가정용게임기, CD롬 타이틀 등)

모집대상 : · PC/CA/정보통신 등 멀티미디어 전문대리 사업체 종사자나 영업기술 보유하신 분
· 기존 AS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분
· 기존매장 및 전자제품 종사자로 본인으로서 자영을 원하시는 분

지원사항 : · 매장임대 및 초기투자 100% 지원(예정)
· 상권분석 및 사업계 100% 지원
· 각종 홍보판촉행사 및 서울 파견교육

지역보호 : 소정의 심사 및 적정기준을 갖추신 분으로서 점포개설 시점에 1곳 이내로 한정 운영

문 의 처 : · 프라자 본점부 (02)528-6360~3
· 해당지역 지점 및 영업소



예써 플래시 ■ 권장소비자가 175,000원
예써 큐트 ■ 권장소비자가 125,000원

전국 대리점

서 울 : 동아건자통신 272-7228 (용산매장) 701-7228 성광통신 716-4632 동양통신 265-0012 무지개정보통신 388-5617 삼미정보통신 533-0066 하이트통신 643-0311/2 (동촌동매장) 652-2754
인 천 : 재경통신 519-5555
부 천 : 철도통신 656-5586
수 원 : 수원통신 252-1482
성 남 : 성남진흥기성사 757-6821
안 양 : 종합상사 68-4000
여 천 : 신진종합유통 638-0386
청평부 : 일파무선통신 871-8700
춘 천 : 춘천현대전자 51-1497
원 주 : 원일무선통신 46-3314/5
강 릉 : 강릉이동통신 645-5555
속 초 : 발통신 32-2727
양 양 : 양양현대C&C 671-1004
부 산 : 청성정보통신 867-7777 867-8888 현대전자판매 817-6351 신정통신 863-2288 부산통신 802-5700 서면전자랜드 817-5848
창 원 : 현대전자통상 94-8182
김 해 : 비젤전화사 33-0089
진 주 : 연합정보통신 43-3700 현대사무기 42-6588
밀 양 : 현대프라자 51-1444
충 무 : 충무현대 646-4252
제 주 : 현대아이존 52-6944
울 산 : 동보통신(주) 49-0721 경인전화사 67-3017 금오정보통신 44-2211 현대정보통신 68-1221 현대백화점 35-6133 우리원백화점 46-8117 오드니백화점 66-4413
대 구 : 세호정보통신 953-0555
칠 곡 : 세호종합통신 321-5457
대 구 : 국제통신 252-6677 우정통신공사 472-0202 대구백화점 423-1234 대백프라자 426-1234 동아백화점 422-2111 동아쇼핑 252-2111
경 산 : 경산종합전화사 811-0900
구 미 : 구미통신 52-3800 동아백화점 455-2131
포 항 : 대백쇼핑 72-7171
경 주 : 남양정보통신 34-0676
경 주 : 현대전자랜드 42-6828
상 주 : 상주하나로 32-1250
대 전 : 제일종합상사 624-7340 대전유통 632-1366 현대전화공사 253-3535 현대전자대흥점 257-6107 대전백화점 253-3347 우리정보통신 636-0493
서 산 : 대한전업통신 65-6001
천 안 : 현대전자랜드 552-4612
공 성 : 현대정보통신 873-2512
충 주 : 21세기컴퓨터 845-3915
온 양 : 아산현대전자 548-6287
광 주 : 국제상사 226-2000 농협충전 362-4417 연금매장 222-0217 영성정보통신 222-5611
목 포 : 세라믹정보통신 43-9422
광 양 : 백운카메라 763-6121
전 주 : 중앙전화사 85-2334 전북농협 75-7770
정 읍 : 삼화전화사 32-6000
여 수 : 농협 653-6041
순 천 : 농협 743-6318
: 원협 722-1234

※전국 유명 백화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9-6 제일빌딩 B-M5 전화기 분양부 : 528-6190~4
■ 부산지점 : 807-1232 ■ 대전지점 : 625-8722
■ 대구지점 : 751-0004/5 ■ 광주지점 : 365-2008
■ 울산지점 : 51-3381/5

현대전자
멀티미디어의 뉴 프론티어
YUNDAI